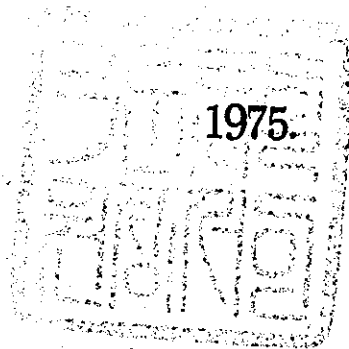


北韓의對中·蘇關係發展과 韓國에 미치는 影響



197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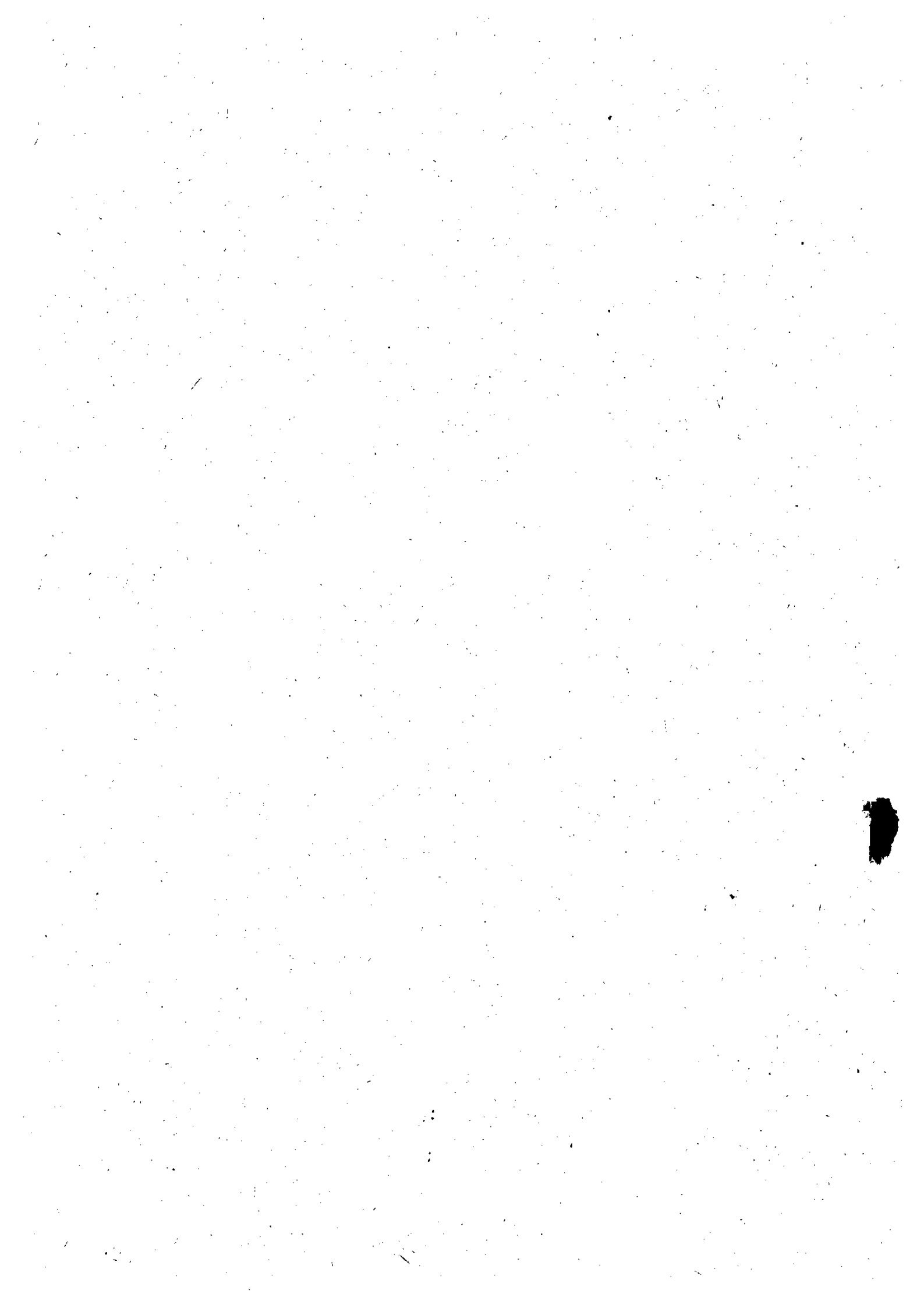
125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5.

研究機關 : 國際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 吉 成 喆



目 次

1. 問題의 提起	1
2. 北傀의 对中·소 政策基調와 中·소의 对匪, 对韓半島 政策	2
3. 最近 中·소의 对韓半島 政策 展開와 北傀의 反应 分析	37
4. 予想되는 中·소의 对匪 勢力再編 움직임	45
5. 北韓의 位置와 今後方策	48
6. 韓國에 미치는 影響과 우리의 对策	52
<別 添> 最近 北方 3角關係의 諸動向	55



1. 問題의 提起

가. 最近 北方 三角關係는 徹底한 自國 中心의 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을 爲한 關係發展이 特徵이며, 이는

- ① 中·소의 極限的 對立持續
- ② 中共·北韓의 表面內實的 密着 傾向
- ③ 소聯·北韓間 表面的 異見露呈으로 나타나고 있음.

나. 이는 北方 3國 共히 「緊張緩和」政策 基調下의 그들 對峙, 對韓半島 政策追求路線上에서 빚어진 理解對立 및 相互交互의 關係發展인 것임.

다. 本 課題는 最近 3國의 對峙, 對韓半島 政策에 나타난 共通點과 差異點에서 北方 3國의 政策展開의 底意를 分析하고, 나아가 今後 予想되는 中·소의 勢力再編 움직임과 이에 對處하는 北韓의 可能的 行動 方策을 判斷하여 我國 外交政策에 寄與하기 爲한 것임.

2. 北傀의 对中·소 政策基調와 中·소의 对亞, 对韓半島 政策基調

가. 北傀의 对中·소 政策基調

① 北傀는 中·소 가운데 어느 한편이라도 關係를 惡化시키지 않고 다같이 親善關係를 發展시키려고 希求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对中·소 政策基調는 1956.4 勞動黨 第3次大會를 비롯해서 每回의 黨大會 및 北傀指導部의 政策演說에서 變함없이 確認되어 왔음.

② 그리고 北傀의 对中·소關係는 그의 모든 對外關係가운데서 가장 重要視하고 있는바, 이는 1961.9 勞動黨 第4次大會와 그밖에 外交政策의 闡明에서도 对中·소 親善關係維持를 繼續 強調해 왔음.

③ 그러나 1970.11 勞動黨 第5次 黨大會에서 유독 中共과의 反美共同鬪爭은 強調하면서도 소聯에 대해서는 对日接近에 따른 間接非難을 한 바 있으나, 中·소와의 親善關係 維持發展을 希求치 않는일은 없음.

④ 다만 北傀의 对中·소關係는 北傀의 親善維持 希求와는 關係없이 첫째, 中·소間의 对立深化와 둘째, 北傀의 对内外政策 要求等에서 意見을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⑤ 대체로 北傀의 对中·소關係는 北傀가 对소 依存으로 獨自의 外交政策을 갖지못하고 있었던 1950年初盤까지는 中·소와의 友好關係는 安住의 位置에 있었던 바, 北傀의 对中·소

友好關係 維持를 바라는 政策基調에는 다음과 같은 要因에서 임.

첫째, 北傀는 「레닌·스타린」主義에 立脚한 世界革命의 追求에 가장 執念이 強한 集團으로되고 있으며, 따라서 世界革命勢力의 一環으로서의 그의 任務遂行을 爲해서는 共產圈의 團結,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統一에 中樞的 地位를 占하고 있는 中·소의 友好關係를 가장 重要한 問題로 보고 있는 同時에 中·소와 友好關係 및 所謂 戰鬪的 紐帶를 發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둘째, 北傀는 소聯과 中共을 다같이 韓國 共產化의 不可欠의 支援戰力으로 보고 있으며,

세째, 北傀는 自体의 防衛를 爲해서 소聯 및 中共과 共同乃至 集團防衛體制를 同時에 強化시킬것을 要求하고 있는 바 이는 北傀에 危脅을 주고있는 對象이 韓國뿐만 아니라 韓國과 同盟關係에 있는 美·日까지를 北傀安保의 主要對象으로 삼고 있는데서 現存의 北傀, 소聯 및 中共과의 軍事同盟關係를 鞏固·強化시켜야 하기 때문임.

네째, 北傀는 全般的 對外政策의 要求로 부터도 소聯 및 中共과의 關係를 同時에 發展시키는 것이 必要한 것인바, 이는 北傀의 外交目標가 國際的 反韓·反美 統一戰線形成拮, 地位의 相對的 優位確保, 對UN政策 成功등의 目標를 이루기 爲해서는 中·소의 共通的 支援이 必要하기 때문임.

다섯째, 北傀의 現存權力の 安全을 保障하기 爲해서도 中·소의 親善關係維持가 必要하기 때문임.

⑥ 그러나 北傀의 對中·소關係 偏重度의 變化 要因은

첫째, 共產主義理念 둘째, 國家的 利害關係 셋째, 現存權力的 權力維持에 對한 要求등에서 決定되고 있는데 中共과 소聯이 以上 3가지 北傀要求를 各各 어떻게 그리고 어느만큼의 比重으로 充足시켜 줄 수 있느냐가 北傀의 選擇의 基準이 됨.

(1) 소聯의 對亞·韓半島 政策

過去半世紀의 소聯外交政策을 綜合적으로 檢討하여 보고, 對極東政策을 分析하여 볼 때 1970年代에 取하고 있는 소聯의 極東政策은 다음 몇가지 目標를 主軸으로 삼고 있는 것임.

첫째, 소聯은 極東에 있어서 于先적으로 소聯의 領土를 中共이 侵略하지 못하도록 防禦를 驅軸하는 것임.

둘째, 中共과 美國이 聯合勢力을 만들어 소聯에게 威脅을 주지 못하도록 預防하는 것임.

셋째, 美國과 日本사이에 締結되어 있는 軍事的 安保條約을 和解시키며 同時에 日本의 再武裝을 防止함은 勿論 北京政府와 結託하지 못하게 妨害하는 것임.

넷째, 韓半島에 對하여서는 四大強國中 어느 한 나라가 韓半島를 独占하거나 軍事 基地化 하지 않도록 막으며 外部勢力에 依存하지 않는 自主的이며 獨立的인 統一政府가 樹立되는 것을 希望할 것임.

(2) 소聯의 對亞 政策

19世紀 後半부터 帝政「러시아」는 恆常 近代化의 焦點을 西洋化에 두었기 때문에 東亞細亞 問題는 큰 考慮에 넣지도 않았다. 그러나 日本의 近代化가 急激히 成就되고

日本の 軍事力이 擴張됨에 따라 漸次的으로 威脅을 느끼게 된 것임. 中國의 淸朝가 衰弱해지던 19世紀 後半에는 帝政「러시아」도 역시 「구라파」強大國의 東方進出을 契機로 中國大陸에 侵入하여 西洋帝國主義의 利益을 나누게 되었음. 따라서 日本勢力이 強하여 짐에 따라 힘의 對決은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日露戰爭을 치루게 되었던 것임.

日露戰爭에 敗戰한 帝政「러시아」는 그의 打擊을 回復하지도 못하고 窮極에 가서는 社會革命을 當하였던 것임.

소聯革命이 일어난 1917年부터 第2次 世界大戰이 일어난 1941年까지 소聯의 東方政策을 分析하여 볼 때 「볼셰비키」指導者들은 東亞細亞에 對하여 큰 關心을 갖지 못하였음. 따라서 日本을 除外하고 其他地域에 對하여서는 소聯의 外交政策은 없었다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임.

그것은 「맑스」의 革命理論이 極東에는 適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東洋은 西洋에 比하여 社會革命이 일어날 수 있는 前提條件이 全혀 없음. 社會發展 過程에서 東洋社會는 半封建的인 同時에 半植民地的 社會라고 「레닌」은 判斷을 하였기 때문에 「맑스」主義에서 予言한 革命은 일어날 可能性이 없었기 때문임. 「맑스」理論에 依하면 產業이 極度로 發達한 資本主義社會에서 勞動階級(「프로레타리아트」)이 企業主의 擄取와 壓迫을 참지 못하여 暴動을 일으키고 資本主를 除去하는 所謂 社會革命을 予言하였던 것임.

그러나 소聯革命이 일어난 1971年頃의 東洋社會에는 產

業이, 發達하지 못하였던 고로 工場에서 일하는 勞動者는 極少數에 지나지 않았고 東洋人口의 大部分은 農民이었던 것임. 이와같은 現象은 確實히 「레닌」에게는 社會革命을 指導하는데 있어서 큰 「디렘마」로 看做되었던 것임.

소聯의 立場에서 볼 때 東洋社會는 아직 社會革命을 겪을 過程은 못되고 西洋의 強大國의 半植民地에 지나지 않았고 經濟적으로도 西洋帝國主義의 隸屬國家로 보았음. 따라서 從主國家인 西洋帝國主義로 부터 解放되는 民族解放運動을 主張하게 되었던 것임.

民族解放運動의 理論的 根拠는 第二次 「코민테른」(國際 共產)會議(1920年 7月27日)에서 「레닌」이 草案한 民族과 植民地問題에 관한 「테제」에 두었고 1920年代의 小聯의 東方政策은 이와같은 理論을 基礎하여 이룩된 것임. 그러면 小聯의 對東「아시아」政策의 核心이 되어온 民族解放 理論은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世界의 政治情勢는 바야흐로 「프로레타리아트」 獨裁傾向으로 흐르고 있음. 世界政治의 核心은 한가지 重要한 問題 即 世界의 「부르조아」(資產)階級은 「소비에트」共和國에 對하여 鬪爭을 展開하고 있다는 點임. 小聯共和國은 先進國內의 「소비에트」運動과 植民地와 被壓迫民族間에 展開되고 있는 民族解放運動을 引導하고 있다고 「레닌」은 主張하였음. 따라서 各國의 勞動運動에만 重點을 둘 것이 아니라 各國에서 展開되고 있는 모든 民族解放運動과 反植民地運動을 小聯은 積極 支援해야 된다고 「레닌」은 說明하였음.

특히 後進國과 未開發社會에서는 封建的, 君主的 或은 君主農民的 傾向이 많은 故로 共産黨은 革命的인 解放運動을 支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레닌」은 主張하였음. 特히 重要的 것은 後進國에서 展開되는 農民運動을 積極支援하며 地主階級 및 封建殘滓들과 對抗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레닌」은 指摘하였다. 農民運動을 指導하여 革命的 性格을 불어 넣어 주고 農民과 被壓迫民을 組織하여 「소비에트」式 機構로 引導하여 歐羅巴의 「프로레타리아트」運動과 東洋의 革命的 農民運動을 連結시키는 것이 1920年代의 革命課業이라고 「레닌」은 말하였음. 이와같은 理念은 1920年代에 소聯이 對中國政策을 세우는데에 莫大한 影響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第2次 世界大戰後 解放된 後進國의 共産運動에도 理論的 指針이 되었던 것임.

1920年代와 1930年代에 日本의 植民地 統治下에서 獨立運動에 加担한 韓民族中 「맑스」主義者도 있었겠지만 純粹한 民族主義者中에도 「레닌」의 民族解放 運動理論에 魅力을 느끼고 呼應한 指導者도 있었을 것임. 民族 解放運動의 理論은 「맑스」가 提唱한 先進國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革命運動의 理論과 同等한 立場에서 「레닌」이 後進社會와 植民社會에 있어서 革命運動을 指導하는 理論的 바탕이 되었으며 「레닌」의 理論的 貢獻은 西歐學界에서도 認定을 받고 있다. 따라서 世界革命을 論할 때에는 「맑스」의 先進國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革命理論과 「레닌」의 後進社會에서의 民族解放運動의 理論을 結合시켜

서 「맑스·레닌」主義의 理論을 說明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소聯의 指導者들은 「이데오로기」를 強調하는 世界革命과 소聯의 國家利益을 優先順位로 라는 外交政策을 놓고 兩者択一인 경우에는 恆常 國家利益에 合당한 外交政策을 세웠고 世界革命課程을 犧牲시켜 버린 例가 많이 있다.

「이데오로기」에 根拠를 둔 政策보다 實利에 重點을 둔 政策을 遂行한 外交政策의 一例를 든다면 소聯의 對中國政策에서 볼 수 있을 것임. 소聯의 10月 革命以後 「레닌」은 于先 西歐의 強大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한 後 東部 「시베리아」를 侵攻한 日本과 外交關係를 樹立함으로서 日本으로 하여금 「시베리아」海參威로 부터 侵略軍을 撤收케 하고 「사하린」北部의 占領을 終結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中國에 對하여서는 一貫性있는 政策을 認定할 수 없었음. 그 當時의 中國大陸은 辛亥革命(1911年)以後 統一된 政權을 세우지 못하고 各地域에서 軍閥政治가 盛行하고 있을 때였다. 그 中에서도 北京에 있는 政權 袁世凱가 引導하는 政權과 廣東에서 樹立된 孫文이 引導하는 二개의 政府가 뚜렷한 政權이었으나 南北모두다 統一된 政府는 못되었음. 소聯의 革命政府는 西洋에서 獨逸이나 其他 資本主義 國家와 外交關係를 樹立한 것과 마찬가지로 北京政府와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革命政權의 承認을 얻고자 努力하였음. 帝政「러시아」末期부터 「러시아」支配權下에 있던 蒙古를 「볼셰비키」政權 影響下에 두기 위하여 蒙古人民共和國을

樹立하여 北京政府의 承認을 얻게끔 만들고 蒙古人民共和國
을 소聯의 隸屬國家로 만들었던 것임.

過去 帝政「러시아」가 確保하였던 領土占領과 經濟特權을
拋棄하는 한개의 例로서 東支那鐵道를 北京政府에 返還한다
고 宣言까지 하였으나 北京政府와의 交渉은 여의치 못하였
다. 소聯이 北京政府와의 交渉에서 失敗한 것은 소聯政府
의 失策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北京政府의 頑固한 態度 때문
이었다고 할 수 있음.

北京政府와 外交關係를 樹立하려고 하다가 失敗한 소聯政
府는 廣東에 있는 孫文의 國民黨政府와 交渉하여 國民黨을
中國의 政治勢力의 核心으로 만들고 國民黨으로 하여금 소
聯의 對中國政策을 遂行코자 하였음. 이와같은 政策目標을
세우고 소聯의 特命全權大使格인 「마이클 보로딘」
(Michel Borodin)을 廣東에 派遣하여 國民黨 政府의
顧問役割을 맡게 하였던 것임. 이것이 바로 1923年の
일이었음.

이와 同時에 소聯政府는 好轉되어 가는 國際環境을 利用
하여 1923年 여름 外務次官 「카라한」을 北京에 派遣하
여 北京政府를 積極 支援하던 英國은 소聯과 外交關係를
1924年 2월에 樹立하게 되었고 蒙古에 駐屯시켰던 소聯
軍의 撤收도 約束한 바 있으며, 또 「시베리아」에 派遣하
였던 日本 侵略軍도 撤去하게 됨으로써 外交關係改善의 條
件은 判異하게 달라졌음. 또한 소聯 代表 「카라한」次官
은 外交特技를 發揮하여 소聯政府와 北京政府는 1924年

5月31日에 外交關係를 正式으로 樹立하게 된 것임. 南北에는 두개의 政府가 있었지만 소聯政府는 革命理論이나 「이데오로기」에 支配를 받지 않고 國家利益에 依拠하여 北京의 保守政權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고 廣東의 進歩勢力과도 政治關係를 맺었던 것이다. 1921年 7月에 創設한 中國共産黨을 積極적으로 支援하여 中國의 革命勢力을 培養하여 中國의 「프로레타리아」革命을 遂行할 意圖는 全혀 없고, 오히려 國民黨을 進歩的 民族勢力으로 看做하여 國民黨을 도와서 中國大陸의 政治勢力으로 만들고자 한 소聯의 對中國政策은 「이데오로기」보다는 實利에 더 重點을 두었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中國의 共産黨은 소聯의 實利外交政策 때문에 소聯을 위한 犧牲物이 되었던 것임. 소聯의 立場으로서는 中國은 아직 社會革命을 遂行할 段階에 이르지 못하였고 外國의 壟斷資本勢力이 支配하고 中國人民은 被壓迫民族이기 때문에 于先 進歩勢力으로 登場한 國民黨을 擴張하고 強力한 組織으로 만들어 中國大陸을 統一케 하고 英國과 日本의 帝國主義勢力과 對抗시키는 것이 소聯의 安保利益에 重要하다고 보았던 것임.

國民黨의 顧問으로 派遣된 「마이클·보로딘」은 第一次 國共合作(1923年~1927年)을 成功시켰고 中國共産黨을 犧牲시켜 가면서 國民黨의 幹部를 多數 選拔하여 소聯에 派遣하여 訓練시켰음. 그 中에는 蔣介石도 選拔되어 1923年에 數個月동안 「모스크바」에서 組織訓練 및 軍事訓練을 받고 돌아왔음. 國民黨의 組織은 完全히 소聯共産

党式으로 模倣하였고 蔣介石은 소聯 留學으로부터 돌아와 黃浦軍官學校를 創設하여 國民黨과 國民軍의 軍事指導者를 길러 냈음. 國共合作當時의 中共黨員이나 中共黨의 幹部들은 大部分이 國民黨의 第2次的인 職位에 推대되었을 뿐 政策 樹立에 重要한 役割을 할만한 職責을 갖지 못하였던 것임. 蔣介石이 指揮하는 北伐이 比較的 順調롭게 進行됨에 따라 國共合作에는 深刻한 葛藤이 생기기 始作하였음. 政策的인 意見差異도 물론 없지는 않았으나 힘의 對決이 重大한 「이슈」로 나타났던 것임.

國共合作 内部의 葛藤은 또한 소聯 指導層内部에 政策論 爭을 불러 일으켰음.

이것이 바로 「스타린」과 「트로츠키」간의 論爭인 同時에 權力다툼이었던 것임.

「트로츠키」持論은 무엇이었던가? 그는 中國革命의 現段階는 「부르조아」革命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革命이다, 고로 國共合作은 無用之物이며 中共黨을 支援하여 社會革命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였음. 反面 「스타린」은 中國革命의 現段階는 「부르조아」革命段階이다.

故로 國民黨과 蔣介石같은 軍閥을 도와서 中國의 統一政權을 세우고 「부르조아」革命을 完遂해야 된다고 主張하였음.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政策論爭에서 「트로츠키」는 權力에는 졌지만 政策理論은 正確한 것이었다. 「스타린」의 政策은 失敗의 苦杯를 마시지 않을 수 없었음.

北方討伐에 成功한 蔣介石軍은 氣勢當當하게 上海를 陷落

하고, 共産党的 本部이며 共産運動을 支持하는 勞働運動勢力이 가장 많은 上海에 到達하자 共産党和 共産主義를 同情하는 勞働者를 無慈悲하게 抹殺하였음. 中國의 共産主義者들이 犧牲當하는 1927年 4月에도 「스타린」은 繼續하여 國共合作을 主張하였고 蔣介石이 引導하는 「부르조아」革命을 成功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하였음. 結局은 소聯의 國家利益이었던 反帝國主義政策 때문에 中國共産黨은 完全히 犧牲當하였으며 中·소紛爭의 原因은 1927年에 있는 「스타린」의 對中國政策으로부터 始作되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임.

國共合作이 分裂되고 「스타린」政策이 失敗로 돌아간 1927年부터 中國共産運動은 소聯에 依存하지 않고 自主的이고 獨立的인 江西時代의 「소비에트」運動을 展開하여 都市革命의 失敗를 反省하여 農村革命期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 이와 同時에 日本의 軍國主義는 滿洲를 占領하여 日本의 衛星國인 滿洲帝國을 樹立하여 日本의 大陸侵略의 基盤을 確固히 하였던 것임. 日本의 滿洲侵略은 소聯의 東部地域에 對한 큰 威脅이 되었던 것임. 그렇다고 強力한 日本의 軍事力을 對抗할 수 있는 國力도 없었으며 軍事力도 保有하지 못한것이 소聯의 形便이었음. 소聯이 所有하고 있는 東支那鐵道에 對하여 日本이 壓力을 加함으로 소聯은 東支那鐵道를 아주 헐값으로 日本政府에 売却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임. 日本의 힘이 滿洲에 定着되고 中國의 北方으로 부터 소聯의 國境에 까지 侵入함에도

그에 對抗하지 못한 것은 西歐羅巴에서 닥쳐오는 威脅때문이었음.

日本の 大陸膨脹을 軍事力으로 막지 못하는 소聯政府는 1932年 12月 다시 国府政府와 外交關係를 締結하고 蔣介石의 国府政府로 하여금 日本の 大陸侵略을 對抗하게끔 企圖한 것이 1930年代 소聯의 實利 外交라고도 할 수 있음. 또 江西省 一帶에 農民運動을 이르게 中国「소비에트」 政權을 세운 毛沢東主席도 1932年 4月에 対日宣戰 布告를 正式으로 發表하였던 것임. 이와같이 소聯의 外交 戰略은 世界革命을 提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聯의 國家 利益에 符合되는 軍國主義 反對, 反「팻쇼」政策을 採択하여 소聯의 外交政策으로 삼은 것임.

(나) 韓半島에 對한 소聯政策

소聯의 對韓半島政策은 소聯의 東部「아시아」政策의 一環으로 看做하여 왔음. 帝政「러시아」의 對朝鮮半島政策은 恆常 어느 1個 強大國의 支配下에 独占當하지 않는 方向으로 이끌어 온 것이다. 朝鮮半島에서의 經濟的 資源 및 不凍港의 確保를 帝政「러시아」는 政策目標로 삼은 것도 事實이나 李朝末葉 日本이 日清戰爭에서 勝利하고 日本의 힘이 朝鮮半島에 進出하게 됨으로서 「러시아」는 日本勢力의 大陸進出을 두려워한 끝에 日本의 勢力을 沮止하고자 努力하였음. 그러나 日露戰爭에서 敗戰한 帝政「러시아」는 極度로 衰弱해져서 日本의 힘을 더 沮止할 수는 없었다. 日清戰爭과 日露戰爭에서 힘을 誇示한 日本은 마침내 朝鮮半島를

併合하고 日本의 植民地化하여 어긴것임. 日本統治下에서의 朝鮮半島는 日本의 滿洲占領 및 中國大陸 進出의 架橋役割을 하였을 뿐임. 「볼세비키」 革命以後의 소聯政策은 前記한 바와같이 「레닌」의 民族解放運動의 理論에 依하여 日本의 植民地統治下에서 压迫받는 朝鮮民族을 解放시키고 獨立國으로 自處할 수 있게끔 支援을 아끼지 않았음. 朝鮮 獨立을 爲한 愛國鬪士들은 「맑스」主義 理論을 信奉하는 사람이나 信奉하지 않는 사람을 莫論하고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레닌」의 民族解放 運動에 呼應하였던 것임.

「코민테른」이 創立된 1919年부터 解放이된 1945년까지 朝鮮獨立運動은 結局 소聯의 힘을 업고 外勢의 힘 即, 日本統治를 除外하고자 努力한 事實도 많이 있었음. 그러나 소聯의 힘은 相當히 制限되어 있었으며 또한 소聯은 西方 地域의 安保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急先務였기 때문에 東部 地域의 日本威脅은 第2次의 問題로 생각하였던 것임.

「스타린」은 日本의 侵攻보다 獨逸의 侵略을 더 두려워했고 또한 日本의 威脅을 防止하기 爲하여 日本과 不可侵條約까지 締結한 바 있었다. 日本의 滿洲侵略과 「히틀러」의 執權은 「스타린」에게만 憂慮를 던진 것이 아니고 1932年 大統領選舉에서 當選된 「루즈벨트」大統領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되었었음. 1921年부터 1933년까지 執權한 共和黨 大統領은 여러가지 理念面의 考慮와 美國人財産問題解決에 不滿을 表示하여 소聯政府를 承認하지 않고 있었음. 그러나 「루즈벨트」大統領은 優先的인 問題는 日本의 大陸進出

「히틀러」의 領土膨脹이라고 看做하고 소聯에 接近하여 正式外交關係를 樹立하였음. 이것은 1933年 11月 16日 이었음. 또한 1934年 9월에 소聯政府는 國際聯盟에 正式로 加盟하여 集團安保體制를 構想함으로써 西部地域의 威脅인 獨逸과 東部地域의 威脅인 日本의 侵攻을 막으려고 하였음. 第二次 世界大戰이 일어나기 直前까지 소聯의 對 韓半島政策이란 主로 日本勢力만 牽制하려고 하였고, 또 對 西歐政策에다 重點을 두었기 때문에 朝鮮獨立運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 그러나 獨逸軍의 東歐攻擧으로 始作한 第二次 世界大戰은 日本의 真珠灣攻擧으로써 크게 擴大되었음. 獨逸의 「나치」主義와 日本의 軍國主義의 膨脹을 막기 爲하여 美國, 소聯, 英國, 中國은 戰時聯合體를 組織하여 敵軍인 獨逸, 日本, 伊太利에 對抗하였음. 소聯이 東亞細亞에 直接 關與하게된 理由는 1944年 11월에 美國의 聯合參謀本部는 可及的 速히 소聯의 極東司令部로 하여금 滿洲와 北支를 攻擧하여 日本軍이 本土防禦에 臨하지 못하게끔 소聯軍의 參戰을 希望하였기 때문이었음. 職業外交官과 軍事專門家中에는 소聯의 參戰意圖를 疑心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大衆輿論은 소聯軍과 繼續 協力하여 太平洋戰爭을 遂行하는 것을 期待하고 있었음. 또한 「알타」秘密會談에서 美國의 「루즈벨트」大統領, 英國의 「처칠」首相, 소聯의 「스타린」首相間에 合議된 事項을 보면 소聯軍이 日本에 對하여 攻擧하는 條件으로서 蒙古人民共和國을 現狀維持 시키고 「사하린(樺太)」 南半部를 소聯에 反環하고, 大連港

을 國際港으로 만들고, 「큐릴」列島를 소聯에 隸屬시키고 滿洲에서 行事하였던 소聯의 모든 權利를 再確保할 수 있다는 條件下에서 소聯政府는 對日宣戰布告를 하기로 合意하였던 것임.

이와 같은 合意는 秘密會談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알타」協定宣言에는 包含시키지도 않았음.

「알타」協定當時 美國이 大讓步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理由의 하나는 美國의 軍事專門家들의 判斷에 依하면 美國은 獨逸을 敗北시킨 以後 最少限 8個月이라는 期間과 美軍百萬名을 犧牲시키지 않으면 日本의 本土를 占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와같이 莫大한 犧牲을 막기 爲해서 美國의 軍部는 「루즈벨트」大統領을 說得시켜서 「알타」協定에서 소聯에게 大讓步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임. 이와같은 美國의 讓步로 말미암아 終戰一週日前에 소聯이 參戰하게 되었고 滿洲全域의 占領은 勿論 韓半島의 38線 以北에 까지 소聯軍이 進駐하여 日本軍의 降服을 받게 된 것이다. 「알타」協定の 合意는 結局 소聯이 日露戰爭 (1904~1905) 以前의 位置와 勢力을 極東에 있어서 再確保하게 된 것임.

36年間の 植民地統治는 日本의 敗戰으로 말미암아 終止符를 찍게 되었고, 韓半島는 解放되었으나 美·소間的 冷戰으로 말미암아 38線에서 分斷된 채 近 30年の 歷史가 흘렀고 再統一의 길은 아직 遼遠하게 보일 뿐임. 韓半島의 分析은 美·소 強大國 사이에 생긴 冷戰의 所產物이었으며,

韓民族이나 指導層의 잘못은 아니었음. 그러나 美國의 「앤더슨」教授는 韓半島의 分斷은 美소 強大國의 責任이 아니고 韓國사람들의 派閥싸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逆說을 세우고 있음. 그러나 近來에 出版된 書籍과 修正主義 學者들이 研究論文을 發表한 것을 보면 韓半島의 分斷은 美소 兩國의 責任이지 韓國人의 責任이 아니었다는 史的 根拠도 찾아볼 수 있음.

美·소兩國은 1945年부터 1950年 사이에 外相會議, 美·소共同委員會等 協商을 通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企圖한 것은 事實이나 小聯이 判斷한 小聯의 國家利益과 美國의 國家利益이 相衝되는 데가 많았다. 第二次 世界大戰이 終結되기도 前부터 美·소間의 不信과 衝突이 漸漸 甚하여 갔던 것임. 中國과 日本은 오로지 小聯과 美國의 國家安保에 障害가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만 關與하였음. 韓民族의 統一과 獨立을 渴望하는 마음은 至大한 것이었으며 解放直後부터 韓國動亂이 일어날 때 까지 美소兩國에게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였음.

小聯의 韓半島政策은 緩衝地帶(Buffer Zone)를 38以北에다 만들어 小聯의 影響 밑에서 「러시아」의 海參威(Maritime Province)地域과 滿洲의 經濟利益을 保護하는데 利用하는 것이 그의 主目的이었던 것임. 小聯이 그 當時 第一威脅이 될 것이라고 判斷을 내린 것은 日本의 再武裝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님. 前記한 바와같이 日本은 20世紀에 들어서면서 韓半島를 戰略基地로 하여

「우라디보스톡」을 占領(1919~1920)한 바 있고, 또 大連과 旅順같이 重大한 港灣이 있는 遼東半島를 確保하고 滿洲에서 「러시아」가 所有하고 있던 滿鐵과 工業基地를 引受한 例가 있었기 때문에 소聯은 日本의 復興을 거렷던 것임.

日本이 復興하여 再武裝을 하게 되면 日本에게는 韓半島가 戰略적으로 緊要하다고 判斷한 소聯은 韓半島가 日本의 戰略的 橋梁役割을 하지 못하게끔 政策을 써왔음. 그反面 美國의 戰略專門家들은 韓半島가 戰略적으로 重要하다고 보지 않았음. 万若에 美國이 軍事的으로 「러시아」의 亞細亞地 域을 攻陷한다고 假想하면 海軍이나 海兵隊를 使用하여 上 陸作戰을 쓰게 될 것이므로 韓半島는 오히려 戰略적으로 큰 價值가 있는것은 아니었음. 소聯은 地上軍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恆常 陸地戰을 重要視해 왔고, 東歐羅巴를 戰後에 占領한 것도 陸地戰의 戰略價值를 重要視하였기 때문이었음.

終戰後 美國이 歐羅巴에서 獨逸의 復興에 關心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聯은 日本의 復興에 對하여 深刻한 關心을 表示하였음.

日本이 또다시 韓半島에다 勢力을 浸透시켜 韓半島를 戰 略基地로 使用하지 못하게끔 하기 爲하여서는 38線以北에다 金日成으로 하여금 親소政權을 樹立하게 하고 소聯의 經濟 的 或은 軍事的 援助로서 人民軍을 創設하여 國防에 臨하 고 經濟開發에 臨하였던 것임. 韓國動亂의 起源에 對하여 서는 半世紀가 흘러간 오늘날 까지 學者들 사이에 論爭의

焦點이 되고 있으나 本稿의 領域을 벗어나기 때문에 論評하지는 않으나 「후리시초프」의 回顧錄에서 指摘된 바와같이 韓國動亂은 北韓이 先手를 써서 統一을 企圖한 것만은 事實인 것임. 또한 그것은 「스타린」의 強硬政策의 一環이었던 것임.

解放(1945)으로부터 韓國動亂(1950)이 일어나기 直前부터 5年間の 北韓에 있어서의 權力構造를 分析하여 볼 때 北韓共産黨 内部에서는 親소派, 親中共派, 国内派 即 民族主義的 共産派 等等 各種 派閥이 亂立하여 있었으며 金日成 自信도 소聯의 支持를 받고는 있었지만 完全한 「콘트롤」을 行使하지 못한 것은 事實임. 이와같은 派閥競争中에서 소聯은 親소派의 힘을 優勢하게 만들어서 北韓의 統治權을 掌握코자 企圖하였던 것임. 그러나 期待한 바와는 正反對로 韓半島의 軍事的統一은 美國의 介入으로 不可能하게 되었고 北韓의 存在自体가 問題되었을때 소聯보다는 오히려 中共軍이 介入하여 北韓의 存続을 維持시켰던 것임. 이것이 바로 1950年代의 冷戰時代를 産出케한 諸要因中의 하나인 것임. 即 北韓의 存続은 1950年 10月 中共軍의 支援으로 可能케 됨으로서 中共의 影響에 힘입었던 것임.

韓國動亂이 終結된지도 어언간 20年이 흘렀음. 그동안 極動에서 展開된 國際關係에는 相當한 變化가 생겼음. 첫째로 「스타린」의 死亡과 「후리시초프」의 執權으로 共産陣營 内部에도 自由의 旋風이 불기 始作하였고, 1950

年代에 始作된 「스타린」 格下運動은 드디어 中·소紛争으로 이끌었고, 둘째 中소紛争이 激甚하여 짐에 따라 美·소間의 冷戰体制 即, 兩極体制下의 國際關係는 多極化되기 始作하였고, 세계로 極도로 發達한 最新 核武器는 戰略的 思考方式뿐만 아니라 國際体制 一般에게도 큰 影響을 끼친 것임. 敗戰國 獨逸과 日本은 兩極体制의 葛藤속에서 安保를 爲한 國防費에 消耗할 經濟的 負擔이 없이 急激한 産業發展을 奨勵하여 獨逸은 歐羅巴에서 日本은 東「아시아」에서 經濟強大國으로 登場하게 된 것임.

1950年代의 小聯政策은 主로 反美思想을 鼓吹하는 同時에 美國으로 하여금 日本을 利用하여 極東을 支配하지 못하게 하고 其他地域 即 東南亞에서는 反帝國主義 或은 反植民地 運動을 支援하여 民族解放 運動으로 이끌게 하였던 것임. 韓國動亂以後 韓國에 駐屯한 美軍은 大韓民國國軍을 育成하여 反共勢力의 堡壘를 構築하게 도왔음. 1950年代 前半 小聯은 北韓을 積極적으로 支援하여 韓半島를 武力으로 統一하여 共產政權을 樹立하고자 努力하였으나 失敗로 돌아가고 오히려 反共勢力을 強化 시켰을 뿐임.

그러나 1950年代 後半 「스타린」의 死後 小聯의 政策은 所謂 平和共存路線을 挾하여 對西方政策 뿐만 아니라 對「아시아」政策에도 좀 더 融通性을 보였음. 小聯의 對美 政策은 外交關係를 安定시키고 第三世界에 對하여서는 善意의 競爭을 함으로서 小聯의 体制는 美國의 体制보다 後進國開發에 더 優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호리시초프」

는 장담하였다. 소련의 外交政策上 優先順位가 緩和政策을 挾하여 第三世界에 平和적으로 接近하게 됨으로서 強硬路線의 實驗台 力割을 해오던 韓半島는 自然的으로 重要하지 않게 된 것임.

「스타린」의 強硬政策下에서 韓半島의 位置는 戰略적으로 重要하였음. 그러나 「스타린」의 死亡後 1954年부터 소련은 政策變更을 하게 됨으로서 소련外交政策의 優先順位는 緩和政策 即 平和共存政策을 挾하게 되었음. 이와같이 소련의 政策變更으로 말미암아 北韓의 指導者는 對소 一辺 倒外交를 바꾸어 中共과도 제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1955年 12月 28日 “思想事業에서 敎條主義와 形式主義를 退治하고 主体를 確立한데 對하여”라는 題目의 金日成 演說은 自主的이며 中立的인 政策을 세우는 過程에서 소련派와 中立派를 同時에 非難하게 되었다.

것은 1956年 「스타린」格下運動을 이에 予想하고 金日成 自身の 地位를 鞏固히 만들기 爲한 前奏曲이었다 할 수 있음.

소련의 平和共存政策으로 말미암아 소련의 優先順位 (Priority)가 東部地域으로 부터 西方陣營으로 轉換

됨에 따라 北韓은 共產社會의 孤兒가 되지 않기 爲하여 中共에 接近하였으며, 또한 第一次 經濟發展計劃에 있어서도 소聯이 主張하는 輕工業의 優先的 發展보다는 重工業의 優先的 開發이 中共의 政策과 비슷하였고 中共의 同情을 얻게 된 것임.

「호리시초프」 執權下에서 北韓 政權과 소聯의 外交關係는 圓滿하지 못하였다는 證據는 여러 方向에서 찾아 볼 수 있음.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소間의 理念論爭은 開放된 攻擊態勢로 轉換되었고 소聯의 對「아시아」政策도 急變하기 始作하였음. 소聯은 安保政策面에 中共과 日本의 問題를 深刻히 다루지 않으면 안되었고 소聯은 또한 日本이 美國의 極東政策의 關鍵이 되지 않고 美國政策의 利用物이 되지 못하게 誘導하는 戰略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음.

소聯은 可能的 限度內에서 日本이 独立的으로 中共과 接近하지 못하게 하고 또 中共과 美國 사이에 外交的 關係를 進展시키지 않는 것을 바랐다. 그것은 1950年代 來葉인 「아이젠하워」 大統領 執權時代부터 緊張緩和의 「무드」를

다고 中共의 封鎖 政策은 破産狀態에 이르렀으며 새로
當選된 「케네디」 大統領은 1960年代에는 極東에 緊張을
緩和시키고 中共과의 關係도 改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政策 提示를 하였기 때문이다.

1961年 여름 소聯은 北韓과 防衛條約을 締結하고 日本
과 韓國이 北韓에게 威脅을 주지 못하도록 軍事援助도
提供하였으나 北韓指導層이 満足할만한 것은 못되었음.

「호리시초프」의 對中共政策 即 公開的 非難, 經濟 및 軍
事援助의 停止, 소聯技術者의 撤収 등을 傍觀해온 北韓指導
層은 「호리시초프」를 誹謗하기 始作 하였으며, 中共의
立場을 支持하는 聲明까지 發表하였다. 1960年代 初期에
는 소聯·北韓關係는 惡化되었으나 中共·北韓關係는 大進展
을 보았던 것임.

1965年 2月 「하노이」를 訪問한 「코사킨」 首相은
北京에 들려서 周恩来 首相과 會談하고 平壤에 들려서
3日間 滯在하면서 소聯·北韓關係 改善을 示圖하였으며
北韓에 對하여 經濟的 및 軍事援助까지 約束하게 되었던
것임. 韓半島 特히 北韓에 對한 소聯의 影響力은 中共

의 影響을 代置시켰으며 소聯과 北韓의 關係가 改善됨에 따라 北韓의 經濟開發年計劃에 必要한 援助를 提供하여 1970年 까지는 計劃에 따라 經濟發展을 完遂시켰음. (原來計劃은 1961年~67年이었으나 中共의 文革으로 因하여 經濟援助를 받지못함) 또한 소聯은 軍事援助의 一環으로 1971년에는 戰鬪機 580余機, 戰車 900台 60個所에 裝置한 「미사일」 300余基, 潛水艦을 包含한 軍艦 90隻을 北韓에 提供하였던 것임. 소聯政府의 機關紙 「이스베스차」에 依하면 (1971年 3月17日字) 소聯과 北韓 사이에 進行된 通商은 거의 3億3千萬弗에 達하였으며 이와 같은 交易額數는 北韓의 總貿易額數의 7割이 넘고 있음.

1950年代 後半부터 惡化되기 始作한 소聯과 北韓사이의 外交關係는 1960年代 後半에 「브레즈네프」 「코시킨」 領導下에서 改善이 되었음. 그러나 소聯의 對北韓政策은 「스타린」 執權時代와 같은 強硬政策도 쓰지 못할 것이고 「호리시초프」時代와 같이 中共一辺倒外交로서 소聯의 敵愾心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임.

나. 中·소의 對亞, 對韓半島政策

(1) 中共의 對亞, 韓半島政策

<對亞細亞 政策>

- 中共의 國內政治發展은 外交政策에 重大한 影響을 끼쳐 왔음. 25年前 中共外交는 소聯과의 關係密着을 維持하여 所謂 社會主義 世界를 固守했음. 오늘날도 소聯과의 關係가 中共外交 形成의 核心的 要素이나 中共이 第三世界를 設定함으로써 적어도 社會主義 世界는, 소聯과의 敵對的 關係로 因하여, 相互 結合體的인 側面에서는 存在하지 않는 것임.
- 中共外交政策을 形成하고 影響을 미치는 根本要素들의 核心은 傳統主義, 國粹主義 및 「맑스」-「레닌」-毛沢東主義 (M-L-M) 임.
中共은 現在도 古來의 態도와 行動을 堅持하고 있는바 이는 周辺 小國들과의 關係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이들 國家에 對해 中共은 懷柔와 威脅의 政策을 堅持하고 있음. 中共에 對해 友好的 態도와 親中共 文化 (M-L-M) 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이는 民族들은 補償을 받는 反面 다른 勢力과 同盟을 맺거나 지나치게 獨自的인 態도와 政策을 遂行하는 民族들은 処罰을 받아왔음.
이 傳統主義는 現 中共外交의 가장 有力한 要素인 國粹主義와 結合되는 것이며 그들의 첫번째 關心은 國家安保와 中共의 威光 및 勢力을 高揚하는 것임.

中共 指導者들은 그들의 目標가 超大國에 알맞는 勢力과 繁榮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宣言했으며 이점에 있어서 그들은 "富國二軍事的強國"이라는 明治理論을 되풀이 하고 있음. 「파라셀」 群島事件에 있어서 中共은 國家利益이 威脅받을 境遇, 武力行事도 不辭한다는 点を 表示했음. 結局 中共 外交政策은 M-L-M 主義思想에 影響을 받고 있으며 第3世界論도 世界로 浮上하려는 中共의 思想的 努力의 一環임.

"國家는 獨立과 自由를, 人民은 革命을 願한다"는 「슬로건」은 中共이 開發途上國의 訪問客을 接待할 때마다 使用하여 온 것임. 中共의 政策도 그들의 獨特한 世界觀에 따라 正當化되고 說明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理由로 中共은 和解의 時代에 있어서도 冷戰이란 單語를 拋棄할 수 없다고 또한 中共은 그들의 政策이 무엇이던간에 一定한 期間을 두고 世界革命을 援助해야 한다고 主張했음.

그러나 中共의 外交政策 形成의 세가지 要素中에 가장 重要한 것은 國粹主義이며 따라서 中共政策은 矛盾투성이 임. 中共은 覇權主義에 反對하면서도 中共은 「아시아」라는 他們 第一의 利益 地域內에서 마치 超大國처럼 行動하고 있음. 그러므로 中共의 外交政策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中共의 強點과 弱點이 同時에 다루어져야 할 것임.

中共의 對亞細亞政策은 中·소~美·中共關係의 發展과 깊은 連關을 갖고 있는 바 먼저 中共의 對美·對소政策을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음.

現在 中·소關係는 敵對狀態로 繼續 凍結되어 있음.
毛沢東 生存時에는 中·소關係의 進展의 機會는 거의 없으며 毛沢東 死亡後에도 中·소關係 改善은 매우 어려울 것임. 그러나 毛死亡後 中·소關係는 1950年代와 같은 소聯과의 同盟關係 復舊는 不可能하더라도 現在와 같은 水準의 緊張關係 繼續의 代價가 너무 크다는 主張이 擡頭하여 中共政策에 소聯問題가 在登場할 것은 틀림없으며 制限된 和解가 成就될 可能性은 看過할 수 없는 것임.

中·소間에 制限된 和解의 可能性이 있는 反面 兩國間의 戰爭勃發 可能性도 考慮되어야 할 것임.

1968年~69年 中共 指導者들은 實際로 戰爭勃發 可能性을 두려워 했고 그것은 中共 外交政策의 劇的인 變化가 이루어진 重要要因이 된 것임. 그러나 소聯의 現中共指導層을 瓦解시키기 爲한 軍事攻擧 即 予防戰爭에 對한 中共 側 두려움은 現在 많이 褪色했음. 中共은 소聯이 어느 한派를 援助함으로써 中共內部的 後繼者 繼承에 介入할 可能性을 찾고 있지 않나 하는데 점점 關心度를 높이고 있으며 確實히 中共은 이로 因해 林彪事件을 더욱 強調하고 있음.

그러므로 毛沢東 生存時에는 中·소 敵對關係가 繼續되고 全面戰 可能性도 稀薄한 反面, 毛以後 中·소의 制限的 和解可能性은 있는 것임.

中·소戰爭은 「유럽」과 아시아를 크게 動遙시킬 것이며 隣接國으로 波及될 可能性이 큼. 또한 中·소의 어떤 本

質的 和解로 歐·亞 大陸國들에게는 危險을 意味함。 實際로 中·소 同盟은 共產圈이건 아니건간에 中·소의 國境周 邊國들의 獨立을 威脅할 것임。 反面 制限的 和解는 武器 減縮과 核武器制限이라는 面에서는 利로울 것임。 그러나 中·소關係가 現狀態에서 若干의 變化를 일으키더라도 그것은 다른 아시아國들에게 深刻한 問題를 惹起시킬 것임。

○ 現在의 美·中共關係는 沈滯狀態임。 그러한 沈滯의 徵兆는 10次全黨大會의 周恩來 演說에서 나타났으며 美國에 對한 周恩來의 演說語調는 眞實性이 欠乏되어 있었음。 그런 現象은 極左派의 反稅과 實際的 問題에 對한 兩國間的 重要한 見解差異로 더욱 深化되었을 것임。

台灣駐在 新任美大使 任命과 美國內 台灣新領事館 開設을 包含한 最近事態로 台灣問題에 對한 兩國의 見解差異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韓國 및 「인도차이나」도 亦是 兩國間的 意見이 날카롭게 對立되는 問題들임。

가까운 將來의 美·中共關係는 아직 不確實하지만 美·中共 兩國은 相互衝突을 廻避하는 것이 이로우며 中共側으로는 「유럽」은 勿論 아시아의 美軍駐屯이 소聯과의 敵對關係가 持續되는 限 利益이 되는 것임。 根本적으로 現 中共의 外交政策은 相當한 程度의 實用主義 採択과 所謂 超 強大國과 戰爭時의 中共弱勢 認識의 勢力均衡原則에 根拠를 둔 것임。 그러나 深刻한 問題에 關한 美·中共間的 根本的 見解差異는 存在하고 있는 것임。

게다가 中共은 스스로를 第3世界의 同盟國으로 自處하기

爲해서는 兩超大國을 다같이 非難하고 있음. 그러므로 美·中共 關係上에 內在하는 矛盾的 要素는 繼續 實際로 存在할 것임.

1968 ~ 69年 以來 日本과의 關係를 再開한 中共의 現 「아시아」政策에는 많은 重要的 變化가 있었음. 한때 中共은 日本을 「美帝國主義의 走狗」로서 描写했으며 日本의 再武裝을 「아시아」의 重要威脅으로 看做했음.

이와같은 見解는 「닉슨·사토키」 共同聲明에서 日本이 韓國과 台灣은 日本 安全에 매우 重要하다고 말한 點과 日本이 終局的으로 東「아시아」에서 美國의 役割을 代身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派生되었음. 最近 日本은 「第2中間地帶」, 超大國 支配에서 脫皮한 國家, 經濟 및 政治적으로 必要的 國家로 看做되고 있음.

中共은 靑嵐會와 같은 團體를 非難하고 있으나 日·소間의 緊密한 關係 設定防害와 窮極의으로는 美·日 紐帶關係 弱화에 重點을 두고 있음. 極東에서 日本의 影響力을 抑制시키려는 中共의 努力은 軍事的 或은 政治的인 面에 있어 括目할 程度로 成功했음.

韓國과 日本, 台灣과 日本間의 經濟紐帶는 매우 重要하나, 日本은 現在 韓國과 台灣에 對해 軍事的 役割을 갖고 있지 못하며 將次도 그러할 것임. 將來에 日本과 中共이 同盟을 맺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임.

日本-中共關係는 協同보다는 競爭의 關係로 特徵지어 지는 것임. 日本과 中共은 相異하게 서로의 國家利益을 追

求할 것임。日本은 美國과의 特別한 紐帶關係를 堅持하는 한편 비록 힘들기는 하나 日·中 및 日·소間的 關係均衡을 追求할 것임。日本은 政治的, 軍事的 뿐만 아니라 經濟的 考慮下에서도 그와 같은 政策을 強力히 維持해 나가려 할 것임。

中共은 非共産 世界와 經濟的 接觸을 擴大하는 한편 社會主義 構造下에서 要求되는 自給自足の 概念을 保有해 나갈 것임。또한 中共은 한國家에 對한 지나친 依存은 回避할 것임。

韓國과 台灣과 같은 問題로 美國과 中共의 意見이 對立되었듯이 그러한 問題로 日本과 中共도 繼續 意見의 對立이 있을 것임。韓國과 台灣 어느 한편이라도 共産治下에 들어가는 것은 日本의 利益에 附合되지 않음。日·中共 關係의 또 하나의 重要한 點은 1930년부터 40年代의 事件으로 中共人은 日本에 對해 敵對心을 갖고 있음。비록 이런 感情은 政治的 目的을 위해 隱蔽되고 있으나 아직도 存在하며 中共側 態度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음。

그러므로 日·中共關係는 비록 經濟的인 面에서는 擴大될 것이나 兩國間에 繼續되는 見解差異로 因해 어느 한 國家內에서의 政治的 大變動 없이는 根本的으로 變化될 수 없음。

韓國은 中共의 政策이 美國과 日本의 政策과 날카롭게 엇갈리는 地域中的의 하나임。1969年以來 中共은 北傀를 強力히 後援해 왔음。그 理由로는 첫째, 北傀는 中共과 國

境을 맞대고 있으므로 戰略적으로 매우 重要한 것임。中·소가 敵對關係下에 있는 한 北傀와 소聯간의 關係密着은 中共安保에 深刻한 問題를 惹起시키는 것임。中共側에 多幸하게도 現在 소-北傀 關係는 北傀가 소聯에 對한 産業物과 軍事援助를 必要로 하는 立場임에도 不拘하고 좋은 편은 아니며 소聯은 中共손에 늘어나는 北傀와 關係改善을 希望하고 있음。

* 中共이 北傀政策을 支持하는 또 다른 理由는 北傀와 中共간의 類似性임。中共은 北傀의 聯邦制에 依한 韓國統一을 支持하며 또 實際로는 聯邦制를 통한 台灣統一을 推進하고 있음。그러므로 中共이 가까운 將來에 韓國과 北傀를 分離된 存在로 相互 平和共存하는 두個의 政府로 認定할 可能性은 없음。同時에 中共이 直接的 武力介入을 하든, 않든간에 韓國戰을 再開할 可能性도 없음。그와같은 戰爭에 對한 危險 負擔은 現 中·소 關係下에서는 中共側에 매우 크기 때문에 中共은 南北韓간의 平和共存을 保障하는 政策을 쉽사리 支持하지 않는 反面 相互 敵對感 助長을 鼓舞하지도 않을 것임。

台灣은 極東에 對한 中共政策의 또 다른 重要한 問題들인 것임。얼마前 까지만 해도 中共指導部는 台灣이 結局은 本土에 吸收될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台灣問題에 焦燥하지 않았음。한편, 中共은 台灣인과 本土 亡命人들에게 民族主義에 立脚하여 台灣스스로의 本土復歸와 台灣併合의 必然性 兩面을 宣言했음。이러한 宣言은 本土에서 亡命한

民族의 젊은 層에 若干의 影響을 기쳤음。 그러나 中共의 現 政治的, 經濟的 狀況下에서 中共이 台灣政府와 台灣人들 의 忠誠心을 獲得하기 爲해 效果的으로 對抗하기는 어려운 것임。

反面, 台灣은 實際적으로 中共과는 反對의 政治體制를 가 진 하나의 獨立國家로 存在하고 있으며 國際的인 潮流도 現狀維持策으로 기울고 있음。

中共은 現在로는 潮流가 그들이 願하는 方向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點을 認識하고 있음。 万若 台灣人の 自決主義 原則이 適用된다면 現在로 台灣人은 獨立을 願할 것 이라는 事實을 中共指導者들은 잘 알고 있으며 큰 關心을 表明하고 있음。 中共當局은 重要勢力國들, 特히 美國이 中 共의 台灣合併을 默認하여 台灣人들이 合併을 必然적으로 받아 들이기를 希望하고 있음。

中共은 最近의 전작의 演說을 통해 必要한 境遇 台灣에 武力도 不辭하겠다고 威脅했으나 美國이 台灣과의 防衛條約 을 맺고 있는 한 武力行動은 取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政治的 宣言은 繼續될 것이며 그런 宣傳은 台灣은 勿論 美國內 華僑들을 對象으로 할 것임。

中共은 極東에서 重要한 役割行事を 期待하기 때문에 이 地域에 關聯된 소聯, 日本 및 美國과 中共間의 關係調整은 쉽 지 않을 것임。 中共은 東南亞도 中共의 國家利益과 關 聯이 있으므로 그 地域內에서 重要國으로서의 役割을 行使 해야 한다는 見解를 強力히 堅持하고 있음。 그 地域의

非共產國뿐만 아니라 越盟까지도 中共의 그와같은 생각에 憂慮를 表明하고 있음. 이러한 憂慮는 一部는 中共의 同地域內에서 重要國 및 自称 革命指導者로서의 二重的 役割이라는 矛盾에서 緣由되었음.

最近 10年동안 中共은 여러가지 形態로 「버마」, 泰國, 「라오스」, 「말레이시아」와 같은 國家들의 共產黨 運動을 暗暗裏에 支援해 왔음. 中共의 이와같은 政策은 相互 社會主義 體制의 差異를 認定한다는 平和共存原則에 違背되는 것임.

그러나 그와같은 援助도 威脅과 懷柔政策의 一環이며 中共은 「버마」, 泰國, 「라오스」 및 「말레이시아」가 그들에게 穩健한 態度를 取하면 그와같은 援助를 줄였음. 그리고 現在 中共은 소聯의 中共包圍政策에 큰 關心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國家와의 關係重要性이 더욱 高潮되고 있음.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最近 中共과 公式的인 外交關係를 設立하고 그 代價로 中共에게서 內政不干涉의 誓約을 받아냈음.

泰國과의 協商도 조용히 繼續되고 있으며 其他 東南「아시아」國家도 協商 對象國이 될 것임. 그러나 이 地域內의 大部分의 政府는 中共의 態度와 政策을 深刻히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음. 이 地域內에서의 大部分 政府들은 微弱하고 內的으로 深刻한 問題들을 안고 있으며 制限된 軍事力을 갖고 있기 때문임. 게다가 이들 國家는 複合民族國으로 華僑가 그들 人口의 一部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날의 「버마」內 華僑事件은 同地域內의 其他國家에도 골치아픈 問題거리였음。最近 中共과의 利害關係 設定의 努力과 中立政策에도 不拘하고 「네윈」政府는 中共 支援下의 共產黨 暴動에 直面해 있음。

中共이 東南「아시아」內의 共產黨 活動에서 完全히 손을 떼기는 어려운 것임。 왜냐하면 中共은 그들이 革命指導者로서 自勉한 것이 속일수 없다는 攻讐를 받게 되기 때문임。 그러나 어느程度 水準에 다다르면 中共은 그와 같은 援助를 縮少시킬 수는 있으나 同 地域內의 共產黨과 黨級의 同地帶同志의 關係는 繼續 中共 外交政策의 한 要素로 남게 될 것임。

그렇다고 同 地域의 共產黨間의 軋轢과 分爭可能性이 排除될 수는 없음。 예를 들면 東南「아시아」에 對한 中共의 政策은 越盟의 政策과 一致하지 않음。 根本적으로 中共은 同 地域內에서 統合된 集團보다는 小數의 分離된 集團과 協商하길 원함。 中共은 越盟의 「印度支那」支配를 觀望하지 않을 것이며 小數 共產黨들이 越盟에서 獨立하여 中共에 依支하기를 希望하고 있음。 將次 美軍이 「아시아」에서 完全 撤収하고 中·소間의 和解가 이룩된다면 同 地域內의 共產國, 或은 非共產國에 對한 中共의 壓力은 더욱 強해질 것임。

한편 中共은 「라오스」內의 「파테트·라오」와 「캄보디아」의 共產黨 및 越南의 「베트콩」 支援을 繼續할 것으로 期待됨。 그러나 中共은 越盟과의 關係不和에도 不拘하

고 「印度支那」內的 非共產主義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絶好의 機會가 되는 妥結을 模索하고 있음. 그러므로 非共產政府와 政治家들이 存続할 機會는 美國政策과 同 地域內的 非共產國 國內政策에 달려 있음.

中共은 「방글라데쉬」의 獨立으로 外交的 慘敗를 겪었음. 中共의 強力한 「파키스탄」 支援과 「방글라데쉬」承認拒否는 소·印 同盟에 對한 강한 反撥에서 緣由되었음. 그러나 印度가 이 戰爭에서 勝利함으로써 東南「아시아」에서 強力한 勢力으로 浮刻되었으며, 게다가 「방글라데쉬」는 獨立했음. 이로 因하여 中共은 이 地域에서 挫折感을 맛보았음.

中共側의 印度와의 和解는 遙遠하고 「파키스탄」과의 密接한 關係를 繼續 維持해 나갈 것임. 中共은 印度나 「방글라데쉬」와 같이 經濟 및 政治的 慢性危機를 가진 나라는 未來에 가서는 어떤 面에서 中共의 影響力을 받아 드릴 수 밖에 없고 그들 國家와 소聯과의 關係는 永統的인 것이 아니라는 見解를 갖고 있음. 反面 中共은 東南 「아시아」의 印度支配 및 兩超大國의 支配를 反對하는 勢力들에게서 利益을 追求하려 하고 있음.

모든 國家 特히 重要國의 外交政策에는 獨善과 矛盾이 存在하고 있음. 中共의 境遇에도 이런 點들이 두가지 面에서 緣由됨. 첫째 國粹主義와 世界主義 即 國家利益과 「프로레타리아」 世界主義間的 內的 葛藤임. 다시 말해서 中共 代弁人은 그들은 他國에 對한 霸權主義를 결코 促求

하지 않는다고 主張했음.

그러나 社會主義의 崩壞로 中共은 現在 國家資本主義(第2世界)와 農民-「프로레타리아」勢力(第3世界)에서 世界的 影響力 強化를 摸索하고 있음. 게다가 中共은 그들의 國家利益에 符合될 境遇 底開發國家나 指導者에 對한 支援을 躊躇치 않았음. 그러므로 中共은 소聯의 뒤를 追跡하고 있음.

두째 中共은 強大國이면서 開發途上國임. 그러므로 中共의 外交政策 特히 太平洋-「아시아」政策은 이 두가지 面을 잘 反映하고 있음. 中共은 周邊國에 對해 武力을 行使할 能力을 갖고 있는 強大國으로 存在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 그러나 中共은 兩超大國과의 對立을 自招하는 것도 願치 않으며 國內的 利益을 억누르는 外交政策도 取하지 않을 것임. 그러므로 中共은 조심스럽게 外交政策을 펴 나갈 것임.

中共은 또 한번 後繼者問題 등과 關聯된 諸般 內部事情으로 完全히 國內로 關心을 돌려 最少限의 孤立 外交政策을 追求할 것임. 그러나 中共은 現 外交政策을 繼續 追求해 나갈 것임. 당분간 中共은 소聯에 맞서 소聯 封鎖政策을 白紙化시키고 社會主義世界에서 影響力 強化를 圖謀하는 한편 新進國家들과의 鬪爭을 止揚하면서 中共의 利益을 增大해 나갈 것임. 그러기 위해 中共은 美國과 制限的 和解를 기하며 美國과의 汎世界的 共同戰略을 摸索해 나갈 것임. 同時에 中共은 周恩來의 演說처럼 「아시아」에서 重要한 役割을 行事하는 強大國이 되려 할 것임.

3. 最近 中·소의 對韓半島政策 展開와 北傀의 反應 分析

가. 最近 北方 3角關係의 發展은 全般的인 立場에서 考察할때

- (1) 中·소 對立은 的연히 妥協없는 極限狀況을 持續하고 있으며,
- (2) 中共, 北傀關係는 表面, 內實的으로 相當히 密着된 傾向을 보이고 있는 反面
- (3) 소聯, 北傀關係는 表面的으로 相互 異見을 露呈하고 있음.

나. 對亞政策에 있어서는 中·소가 서로 相對方의 包圍, 逆包圍를 爲한 政策展開에 汲汲하고 있는 가운데 北韓으로서는 中·소 對立을 利用, 双方의 援助 增大에 焦點을 둔 對中·소 關係를 維持하려고 努力하면서 匪細匪 反帝統一戰線이 主軸이 되려고 試圖하고 있음. (別添 1 參照)

다. 한便 韓半島 關係에서는 中·소가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는 데 反해 北傀는 表面的으로는 緊張緩和를 내세우면서도 裏面的으로는 正反對의 方向의 態度를 取하고 있는 바,

- (1) 北傀는 現 南北對話를 斷絶, 韓半島의 새로운 秩序를 摸索하고 있으며,
- (2) 中共은 北傀의 立場을 全面 支援하고 있으나, 美·中共關係 對소關係를 意識하여 韓半島에서의 美軍 駐屯을 바라고 있으며,

- (3) 소련은 對韓 柔軟姿勢를 보이면서도 韓半島에서의 外勢撤収에서는 北傀와 見解를 같이하고 있는 한편,
- (4) 南北韓 UN 加入問題에 있어서는 表面的으로는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있으나, 裏面的으로는 同時加入을 支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中共과 北韓은 소련과는 달리 韓半島에서의 <現存 固定化>에는 反對하는 立場을 表示하고 있는 바, 最近 動向에서 나타난 北方之國의 共通點과 差異點은 다음과 같음.

項 目	國 家		
	北 傀	中 共	소 聯
共 通 點 ㉠ 民族解放 鬪爭 支援	○ 民族解放鬪爭 支援을 國際的 義務로 規定, 모든 支援 闡 明。 (金日成 73.9.9 北傀·「모잠비 크」共同聲明 (75.3.7) ※ 中共노선동 조 中共의 피壓迫 民族 鬪爭 支持는 革命的 人民 들에 對한	○ 各國人民의 解放鬪爭을 支 持, 現今의 世 界를 革命的 世界로 規定 (73.10.2 교관화) ※ 第3勢力 「리더」自處	○ 社會主義 나 라들의 民族解 放 力量의 鬪 爭이 國際 緊 張緩和에 決定 的 寄與 (73.3.2 「모스크 ※ 現實的 狀 況을 最大로 參酌한 支援 態度 堅持

項 目	國 家		
	北 傀	中 共	소 聯
① 南北對話	○ 南北對話를 對南戰略 一環으로 利用했으나, 對話 통한 赤化戰略路線 戰況 示唆 (73.8.28 金英柱 聲明)	○ 北傀의 對話 主導와 主張을 始終一貫(積極 支持)하고 對話 斷絶에도 (積極支持)態 度 堅持	○ 南北對話를 緊張緩和에 도 움으로 看做 支持 (71.9.22 「프라우다」였 으나 對話 斷絶 에는(駐韓批判) 으로 論評, 消 極態度(73.9.8 「모스크」放送)
差 異 点			
① 駐韓美軍 撤収	○ 美軍撤収가 北傀의 當面 目標이지만 段 階的 美軍撤収 에 同意 ※ 72年 以 後 對 UN 共産側 決議 案	○ 表面的으로는 駐韓美軍撤収 主張, 美·中共 接近과 함께 美軍의 事實上 駐留 認定 (72.2.28 美·中共 聲明)	○ 駐韓美軍의 即刻 撤収 主 張 ※ 中共이 駐 韓美軍 在留 에 同意하고 있음. (73.8.26 「프라우다」)
② 5大綱領 및 UN同 時加入	○ 하나의 朝鮮 으로 加入 主 張 ※ 中共의 「모	○ 北傀의 對韓 國 非難에 加 担하고 南北同 時加入에 積極	○ 初期 北傀 5大綱領에 直 接 支持 回 避 하다가 74年

項 目	國 家		
	北 傀	中 共	소 聯
	「모델」適用	反對 ※ 台灣處理 問題와 結付	以後 支持 表明。 그러나 UN 同時加入에 對해선 <새로운 人爲的 障 碍을 添加해서 안된 다>고 消極態 度(73.10.19 「모스코」放送)

라. 이와같은 北方 3角關係의 發展속에서 中·소·北傀가 對亞, 對韓半島關係에서 追求하고 있는 底意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評價됨.

(1) 北傀의 底意

- (가) 韓半島 赤化를 爲한 새로운 「패턴」 摸索
- (나) 強大國의 「現狀固定化」 追求 打破
- (다) 中·소의 對韓 接近 傾向 沮止
- (라) 中·소의 對北 競爭的 支援 誘導로 實利 獲得
- (마) 金日成 唯一體制에 對한 國民의 思想 動搖 抑制等임。

(2) 中共의 底意

- (가) 對美·日關係改善, 소聯의 對亞進出 牽制
- (나) 亞細亞 反帝統一戰線 形成, 亞細亞 共產勢力의 盟主로

活動

(1) 實質的 北傀의 代弁者 役割 強化, 北傀의 對中共 便向을 誘導

(2) 自体的 經濟, 軍事能力 向上을 爲한 時間的 余裕 獲得 等임.

(3) 소聯의 底意

(1) 亞細亞 國家로서의 地位와 役割을 強化

(2) 中共을 包圍하기 위한 具體的 方案의 實現

(3) 中共보다 優先한 對韓 柔軟姿勢 表示로서 기선 掌握

(4) 「緊張緩和」追求, 經濟不進 改善

<對亞政策과 關聯한 北方之國의 動向 底意>

區 分	底 意		
	中 共	소 聯	北 傀
① 緊張緩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聯의 奇襲 可能性 減少 ○ 自体安保力 強化 ○ 第3勢力 伸張 助長으로 美·소 牽制 ○ 對西方關係 增進 促進 ○ 「닉슨·독트린」實現 促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소間 軍事的 對決 回避 ○ 對西方 影響 力 增進 ○ 自体經濟力 強化 ○ 平和的 方法으로 世界赤化 促進 ○ 亞細亞 集團 安保 實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南赤化를 위한 素志 造成 ○ 駐韓美軍撤收 助長 ○ 對外 影響力 增進

区 分	底 意		
	中 共	소 聯	北 傀
㉔ 亞細亞 反帝統一戰 線	○ 對美·日關係 改善으로 表面 上 反帝戰線 強化는 弱化되 었으나, 裏面的 으로는 여전히 大陸周辺 地域 의 反帝團結의 強化 圖謀 (北韓, 越盟, VC, 「캄보디 아」, 「라오스」	○ 亞洲反帝戰線 退色 ○ 凡亞細亞的 親소權 誘導 (亞洲集團安保)	○ 對亞 및 凡 世界的 反帝戰 線 強化 促求 ○ 對南赤化 爲 한 直接的 支 援 勢力化
㉕ 現狀固定 化 問題	○ 表裏不同: 소 聯의 壓力을 勘案, 對美 接 近을 促進시키 기 爲해 暫定 的으로는 現狀 固定化를 追求 하나, 內面的으 로는 大陸周辺 에서의 強力한 中共勢力圈 構 築 企圖	○ 固定化 促求: 亞細亞集團安保 構想 實現을 통한 對亞 制 霸를 目的으로 現狀固定化를 促求 ○ 美軍의 對亞 撤収 促進이 目的 ○ 對中共 包圍 網 構築	○ 固定化 反對 ○ 對南赤化 達 成의 稀薄性 ○ 對內體制 崩 壞를 憂慮 ○ 對南 平和 的 競爭에서의 優位 確保 無 望

區 分	底 意		
	中 共	소 聯	北 傀
④ 影響力 擴大	○ 美·소의 對亞 影響力 排除와 對美協力 增進의 必要性 이들의 兩面性 때문에, 中共의 態度는 消極的 임.	○ 對亞 影響力 및 對中共 壓力 強化를 積極 圖謀	○ 對中·소 自主的 位置를 固守하면서 對西方 改善을 圖謀하고, 韓國의 對外地位 弱화 企圖

<韓半島 政策과 關聯한 北方之國의 底意>

內 容	底 意		
	中 共	소 聯	北 傀
① 南北對話 促求	○ 韓半島에서의 優勢 排除 ○ 周辺地域의 緊張緩和 助長 ○ 赤化策地 助長	○ 亞洲集團安保 構想 實現 促求 ○ 凡世界的 緊張緩和 追求 一環 ○ 美·日勢力 排除	○ 對南赤化策地 助長 ○ 体制 繼續 維持
② UN軍 撤収	○ 美軍撤収後의 軍事的 空白을	○ 美軍의 早速 한 撤収를 希	○ 美軍撤収 貫徹 固守로

內 容	底 意		
	中 共	소 聯	北 傀
	日·소가 보진 할 것을 憂慮, 美軍 撤収를 暫定的 反對	求함으로서 自 體 勢力으로 代體 促求	韓國의 弱化 企圖
③ UN同時 加入	○ 北韓의 對소 偏向을 警戒, 北韓의 主張을 政治的으로 代 弁	○ 北韓의 對中 共 경사를 警 戒하면서 南北 韓 UN同時加入 을 裏面的 支 持	○ 對南赤化統一 可能性과 稀薄 과 體制維持의 憂慮 等으로 積極 反對

4. 豫想되는 中·소의 對亞 勢力 再編 움직임

가. 現 段階에서 表面的으로 나타난 亞細亞에 投影된 中·소·美·日 4大國 動向은 「特定 2個國과의 지나친 反目 密着이 許用되지 않는 制約性」으로 해서 既存 亞細亞 秩序의 急激한 變化를 招來하지 않고 있음.

다. 다만 4大強國의 勢力 再編을 爲한 政策方向에서의 中·소의 態度는 圈內보다는 自國利益 優先의 政策展開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今後의 틀이되고 있음.

1) 소聯

實質的 軍事力을 背景으로 한 独自の 地域 紛爭 介入 能力 保持로 對亞 進出의 機會 捕捉에 注力할 것이 豫想되는 바, 이는 75.4 인지 共產化 過程이 黨的인 좋은 例가 됨. 특히 韓半島의 경우도 中共封鎖政策의 一環에서 紛爭을 惹起시킨 以後 調整者로 登場하므로서 影響力을 擴大코져 할 可能性이 있는 바, 今後 方策의 展望은 다음과 같음.

첫째: 亞細亞 集團安保 体制의 實現으로 表現된 소聯의 對亞 政策은 對中共包圍, 封鎖戰略을 具體化 시키면서 亞細亞 國家로서의 役割을 強化하기 爲하여 中共 周邊諸國에 對한 浸透를 積極化 할것으로 보임.

둘째: 韓半島 政策에 있어서는 北傀의 對中共 偏向을 牽制하고 南韓에서의 絶對的인 美·日의 進出을 抑制함으로서,

韓半島를 對中共 包圍 戰略의 基地 및 亞太地域 進出의 前哨 基地로서 確保하기 爲하여 보다 積極的인 努力을 傾注할 것으로 豫想됨。

세째 : 특히 韓國에 對해서는 最近 取해온 一連의 柔軟姿勢를 보다 시킬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韓半島에서의 美·中·소·日의 力關係의 均衡維持와 함께 美·日의 對北傀 接近 趨勢에 따라 伸縮성을 보일 것임。

네째 : 한편 北韓에 對해서는 軍事, 經濟援助를 背景으로 한 影響力을 強化하면서, 北韓이 試圖하는 對外 進出에 對해서는 中共 以上の 助力을 傾注할 것이나, 南北同時 UN 加入 試圖에 對해서도 繼續 消極的 態度를 堅持할 것으로 豫想됨。

(2) 中共

소聯을 意識한 圈內力量 備蓄의 目的과 同 壓力 牽制를 爲해 亞細亞에서의 美國 影響力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下에서 口頭上의 好戰的 口號를 採択하고 있는 바, 今後의 方策은 다음과 같음。

첫째 : 對亞政策에선 亞細亞 反帝共同戰線을 形成, 盟主로서 活動하려고 試圖하면서, 周邇諸國에 對한 影響力을 強化 소聯의 對中共 包圍網을 打破하려고 努力할 것임。

둘째 : 韓半島 政策에서는 一定期間 美軍의 韓半島 駐屯을 認定, 韓半島에서의 美國 對立 狀態를 存屬시켜, 소聯의 對 韓半島 進出을 抑制하고, 日本의 對韓 進出을 牽制하려고 할 것임。

세째 : 韓國에 對해서는 北傀와의 關係를 考慮하여 繼續 外面
할 것이지만, 美·中共 關係가 새로운 段階로 發展할 경
우, 中共의 對韓態度는 柔軟姿勢로 轉換될 可能性도 排除
할 수 없음.

네째 : 北傀에 對해서는 繼續 후원자적 役割을 強化하여 對中
共 密着을 誘導하여 나갈 것이며, 이에따라 政治, 經濟,
軍事的 支援은 勿論, 外交的 支援을 大幅 強化시켜 나갈
것임.

5. 北傀의 位置와 今後方策

가. 앞으로 亞細亞 4角 体制下의 勢力 均衡下에서 韓半島의 位置는 基本的으로는 南方 3角關係와 北方 3角關係라는 力學關係가 維持되면서도 韓半島에 對한 4大國의 物理的 介入 (支援) 与件 및 意志는 漸次 減縮되거나 또는 表面的이라도 支援 減縮의 意表的으로 独立的 戰略地로 浮刻시켜 民族內部化로 誘導시켜 나갈것임。

나. 이러한 展望下에서 北傀가 처할 位置는,

- (1) 地方 3角關係에서는 中·소 對立의 終息의 展望이 없는 狀況下에서 有利한 均衡因子로서의 役割 浮刻으로 自己 利益을 追求할 수 有利한 地堡를 確保하고 있으며,
- (2) 南方 3角關係에서는 美國의 支配的 影響때문에 韓國은 北傀처럼 周辺強國(美國)關係를 利用한 素地가 적어 對美 依存에서 脫皮가 困難하며,
- (3) 또한 地方 3角關係의 構成員인 中·소는 自發적으로 韓國에 接近해올 可能性이 없을뿐 아니라 실사 그런 意圖가 있다 하더라도 北韓에 對한 中·소의 競爭態度 때문에 이러한 意圖가 牽制될 可能性이 있으며,
- (4) 南方 3角關係에서 亞細亞 秩序의 調整者 役割을 노리는 美國과 韓半島의 經濟침식으로 政治的 影響力까지를 確保하려는 日本은 北韓과의 接近, 交流를 擴大하려는 態度를 分明히

하고 있어, 이의 接近이 容易하며,

(5) 多極化 體制로 轉換하는 國際 社會에서 韓國은 對美, 從屬 關係라는 定型때문에 共同 步調가 不拘하나, 北傀는 第3 勢力을 主導하는 中共에 便乘, 地位向上 및 支持 確保가 可能하며, 全般的으로 北傀가 有利한 立場에 놓여질 것으로 展望됨.

다. 北傀의 對應一策

<國際情勢 評價>

○ 4 大國 情勢 評價에 있어

① 美國의 對中共 包圍政策이 破綻되었음이 實証되었음으로 「닉슨·독트린」의 推進은 勿論, 印支事態에서 보인 美國의 亞細亞地域 不介入態度 亦是 對內 危機를 막으려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으며,

② 政治的 獨自性を 摸索하고 있는 日本 軍國主義 復活은 事實이나 海外侵略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③ 中共은 國際社會 進出을 本格化 함으로서 國際的 範圍에서 資本對 共產의 <力量關係의 변화>를 加速化 시킬 것으로 보는 反面,

④ 소聯은 對亞 影響力 拡大를 通해 亞細亞地域 國家의 中共 偏向을 豫防함과 同時에 美國의 漸進的 後退를 逆用하고, 日本의 進出을 牽制할 것으로 判斷하고 있음.

○ 또한 美·中·日·소의 4角體制 形成에 따른 影響力 評價에 있어서는

① 強大國 中心의 國際問題 處理에 있어서는 美·日間の

矛盾이 拡大될 것이며, 中·소의 對美·日 政策은 共히 北傀로 하여금 對美·日 關係 發展에 있어 便乘이 可能할 것이나, 反面 北韓에 對한 積極的 支援과 對韓 當分間 柔軟 姿勢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음.

㉔ 兩 陣營間의 影響關係에 있어서 中共은 變化를 加速化 시키는데 主導役割을 할 것이나, 소聯은 對美·日 關係 展開에서 北傀에게 有利한 條件을 賦與해 줄 것이라는 點에 着眼, 中·소의 對立 持續에도 不拘, 이에 便乘, 雙方 다같이 利用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고 있음.

㉕ 따라서 4角体制 形成으로 因한 韓半島 問題의 民族內 部化 促進 過程에서는 南方 3角關係의 離間과 北方 3角關係의 現狀維持가 可能하다고 보고 現時期를 對南革命 工作 展開의 適期로 評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北傀의 政策方向>

○ 따라서 今後 豫想되는 北傀의 政策 方向은

㉑ 強大國 中心의 國際問題 處理에 있어 美·日間 矛盾은 拡大될 것이나, 中·소의 對美·日 政策이 北傀에 肯定的인 面(美·日の 對韓離間)보다는 否定的 側面으로의 展開되는 立場(對韓 柔軟態度)에 當面해서는 共產圈內 國家와의 關係 增進에 外交力點을 두게 될 것이며,

㉒ 兩 陣營間 影響關係에 있어서는 美·소의 軍事的 兩極化 体制에 便乘, 安保面에서의 中·소의 競爭的 支援 保障을 말고 특히 中共의 國際的 變化 加速化에 便乘, 地位向上에 力點을 두면서 自主路線을 徹底히 貫徹하는 政

策을 展開할 것이며, 對北 支援의 共產圈內의 結束 弱화를 第3勢力과의 紐帶強化 및 西方浸透로서 補完하면서 對韓 國際的 地位의 優位와 對韓 孤立化에 注力 할것임。

- ③ 또한 強大國의 平和共存 路線에 順應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下에서 「民族解放鬪爭」을 強調, 中·소等 共產圈의 支援 誘導에 注力하는 一方 民族內部化 名分の 對南 暴力革命工作을 最大限 展開할 것으로 判斷됨。

6. 韓國에 미치는 影響과 우리의 對策

가. 安保 統一面

- 中·소의 對立 激化와 中·소의 競爭的 對北態度는 오히려 北傀의 緊張造成 要因이 됨.
- 그러나 一面, 中共의 對西方 接近政策 展開와 소聯의 積極的 亞細亞 安保 構想 推進은 韓半島 緊張緩和를 통해 現狀 固定化를 期하는 것임으로 韓半島 安保上 消極的인 面이 될 수 있음.

나. 南北關係

- 「모스크바」의 「유니버시아드」大會에서의 韓國 代表團의 參加와 「美軍撤収 條件의」 對韓 修交提議(75.)等은 소聯이 現實的으로 韓國을 默示的, 暫定的 承認 徵候로 볼 수 있다면, 이는 北傀 唯一 主張의 弱化乃至 破綻의 要因이 됨.
- 北傀 主導下의 南北 接觸을 支持하고 表面的이긴 하지만 北傀만의 唯一 合法政府 支持 發言은 二重的 意味를 內包하 고 있으나, 暫定的 面에서는 韓半島 現狀固定化에 肯定的 作用을 할수도 있음.
- ① 73.4.12 「에카페」: 中共 代表 「韓國만의 參席은 不合理 하고 非正常的이라」고 主張.
- ② 73.3.15 中共 外務省 聲明, 大陸問題에 對해 韓國 意識

㉓ 73.7 北傀의 WHO加入時 南北同時加入 支持

㉔ 75.4.26 金日成 訪中 共同聲明 北傀의 唯一 合法政府 支持

- 그러나 問題는 中共의 暫定的 韓半島 現狀固定化 態度는 中共의 對西方 刺戟 回避條件 下에서는 전도 될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는 中共의 背後에서의 積極的 對北 支援으로 나타날 憂慮性 있으며, 中共의 世界問題 處理에의 關係 契機될 수 있음.

다. 外交面

- 소聯 및 東歐 諸國의 對韓「유엔」姿勢에 對한 北傀의 牽制活動 強化는 韓國의 對東歐 接近의 否定的 要因이 되며,
- 다만 共產圈의 團結瓦解와 實利 追求의 外交傾向 漸高는 時間性을 지닌 問題이지만 韓國 承認 誘導의 青信號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中共의 對外 影響力에 便乘한 意慾的 進出과 第3 世界에의 加入 可能性 等은 我國의 UN關係的인 統一政策의 轉換을 不可避 하게 하고 있음.

라. 對策

(1) 對中·소 接近 政策

最近 中·소의 對韓半島 動向을 살펴 볼때 韓國으로서는 對中·소 接近 方向에 있어서,

첫째 : 于先 소聯에 對한 接近을 積極化하여 中共을 刺戟시켜
中共의 對韓接近을 誘導 시키며,

둘째 : 接近 方策으로서,

○ 美·日·仏 等の 友邦을 통한 接近 「루트」 開拓으로서
「모스크바」와 北京駐在 友邦 大使館에 我國 外交官의 投
入 方案도 考慮해 볼수도 있으며,

○ 또한 文化 및 「스포츠」의 積極的 交流를 推進하는 이
른바 人民外交의 展開와 同時에

○ 對東歐 및 對中·소 貿易關係의 길을 積極 開拓함이
必要함。

(2) 對北戰術

韓國의 對中·소 및 對東歐圈 外交가 執拗한 妨害策動으로
쉽게 政策 轉換으로 誘導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첫째 : 北傀를 外交적으로 더욱 孤立시키는 方便으로서 第2의
6·23 宣言을 (南北對話에서의 平壤에서 開催 受諾) 함으로
서 共產圈의 政策轉換 誘導

(3) 對內面에서

韓國內의 民主基盤 強化 및 國民의 對厄姿勢에 整備 必要

첫째 : 對國民 輿論 「리드」

둘째 : 國民 政府間 一體感 賦與 方案 講究 等임。

<別 添>

1. 最近 北方三國의 動向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1. 亞洲集團 安 保	○ 論 評 回 避	○ 中共 隸屬시 키려는 것임. (73.1.20 周恩來) ○ 「아시아」諸 國을 支配, 分化 시키며, 勢力圈을 擴大시키려는 것임. 極東地域國家들 은 超大國의 陰 謀策動을 打破시 켜야 함. (73.4.12 안치 원 「에카페」總會 演說)	○ 中共包含, 모 든 「아시아」 國家 同等資格 參加主張 (73. 8.15. 「브레 즈네프」) ○ 中共은 帝國 主義 反動勢力 과 野合, 「아 시아」 集團安 保 反對 (73. 8.26 「프라우 다」) ○ 「아시아」集 團安保는 그 어느나라를 反 對하려는 目的 이라는 非難은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2. 領土紛爭	論 評 回 避	<p>○ 소聯은 歴史的 侵略事實을 抹殺 하기 위해, 國境 地域 名稱을 「러시아」語로 變更 (73.3.6 신화사)</p> <p>○ 國境地帶에 150萬의 軍隊를 集結시키고 中共을 侵略하려는 소聯의 計劃은 모두 失敗로 돌아갈 것임. (73.5.2 中日 友好協會長 廖承志)</p> <p>○ 소聯社會帝國主義는 帝國主義로서의 侵略的 本性에 아무런</p>	<p>誤道된 論理 (73.9.25 「그로미코」)</p> <p>○ 「아시아」集團 安保構想은 中·소關係 改善促進 (73.8.11 「프라우다」)</p> <p>○ 中共에 對해 아무런 領土的 要求도 없으며, 自主權의 尊重, 平等, 內政干涉의 原則에서 關係改善 希望. 힘을 行使하지 않고 國境 問題를 調整하여야 할 것임. (73.9.24 「브레즈네프」)</p> <p>○ 北京의 對外政策은 소聯領土에 對한 어리석은 要求 (73.8.26</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變化없음. (73.8.24 人民日報)	「프라우다」)
3. 對美·日 接 近	<p><美·中共共同聲明 反應></p> <p>○ 美·中共共同 聲明 發表를 契機, 美帝追從 者들 內部에서 는 더욱 큰 混亂이 일어나 고 있음. (72.3.4 勞動新聞)</p> <p>○ 中國에 對한 封鎖孤立政策의 總破綻 意味 (72.3.4 勞動新聞)</p> <p><「닉슨」訪소와 「브레즈네프」訪 美에 對한 反應> 論 評 回 避</p>	<p>○ 中共은 平和 共存 5 原則下에 對外關係·遂行 (72.2.28 美·中共聲明)</p> <p>○ 中共은 결코 第3國問題 흥정 않을 것임. (72.2.28 美·中共聲明)</p> <p>○ 「브레즈네프」 訪美는 複雜한 心理下에 이루어 졌으며, 自己</p>	<p><對美接近></p> <p>○ 美國과의 關係 改善은 地球上에 서 國際的 기후 를 根本적으로 變更시키는 전 반 적 過程의 유기 적 構成部分 (73.9.24 「브레즈네프」)</p> <p>○ 美·소關係는 第3國을 反對하 거나 損害를 끼 칠 目的을 갖고</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矛盾狀態의 露呈 임. (73.6.22 周恩來)</p>	<p>있지 않는 條件 에서 實現되고 있음. (73.9. 25 「그로미코」)</p>
	<p><北韓의 對美態度> ○ 對美政策은 內政干涉 排除, 美軍撤收, 「인 키크」解体가 이루어져야 바꿀 수 있음. (72.5.26 金日成 NYT 「솔 스베리」會見) ○ 對美通商, 經 濟關係 樹立에 反對치 않으며, 駐韓美軍 撤收 하면 이러한 關係 歡迎 (72.6.21 金日成 WP 「해리슨」會見) ○ 美國人民과 美帝와는 區別,</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美國人民과는 關係改善 希望 (72.6.21 金日成「해리슨」)</p> <p>○ 美帝가 부르짖는 平和에 對하여 絶對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反帝, 反美 鬭爭을 弱화시켜서도 안됨. (73.9.9 金日成)</p>	<p><對日接近></p> <p>○ 兩國間에 存在하고 있었던 非正常的인 狀態의 終止符이며, 戰爭狀態의 終結임. (72.9.29 中·日共同聲明)</p>	<p><對日關係></p> <p>○ 「田中」首相의 訪소는 兩國關係 發展의 重要出發點 (73.9.24 「브레즈네프」)</p> <p>○ 兩國의 友好 善隣 및 協力 關係로 樹立코져하는 것이</p>
	<p><日·中共國交樹立 反應></p> <p>○ 北韓人民들은 日·中共國交樹立이 極東과 「아시아」의 緊張緩和에 寄與하는 것으로 歡迎 (72.10.3 勞動新聞 社說)</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日 外相 訪소, 「그로미코」訪日, 「田中」日首相 訪소> 論 評 回 避</p> <p><北韓의 對日態 度> ○ 韓·日條約 廢 棄가 對日國交樹 立의 前提條件이 아님. (72.4.27 金日成 日本3社)</p>	<p><소聯의 對日接 近 論評> ○ 日·소協力は (「추메너」에 서 「나흐도카」 까지 「파이프」 連結) 소 聯의 反中 共 攻擊能力 提高시키는 結 果임. (73.5.15中共 友好訪日團長 啓承志)</p>	<p>소 聯의 意圖임. (73.9.25 「그로미코」)</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 日本政府가 어떠한 方針을 取하든間에 關係 없이 韓日條約 特히 第3條는 無効가 되었다고 생각함. (73.8.4 윤기복)</p> <p>○ 北韓人民은 日本軍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을 繼續 힘있게 벌 릴 것임. (73.9.9 金報告)</p>	<p>○ 美·中共은 亞·太地域에서 覇權 不追求 (72.2.28美·中共 共同聲明)</p> <p>○ 소聯은 「아시아」에서 覇權 確立을 위해 「아시아」集團</p>	<p>○ 中共은 核力을 背景으로 東南亞에 새로운 軍事 政治的 勢力圈 形成을 企圖 (73.8.26 「프라우다」)</p> <p>○ 中共의 「아시아」集團安保体制</p>
	<p>○ 中共의 印支 3個國 人民들의 立場에 對한 堅 決한 支持 表明 은 싸우는 革命 的 人民들을 繼 續 積極 支持 聲援하려는 確固 한 決意表示임. (72.3.4勞動新聞)</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 中·소代表團 派遣規模</p> <p>1) 73.9.9 절 行事</p> <p>中共→高位 3 個代表 派遣 李先 念副首相 包含 소聯→1個代 表團(「노 비코브」 副首相)</p>	<p>安保体制를 構想 (73.4.12 「에카페」中共代 表 安致達)</p> <p>○ 美帝는 自身の 衰退를 認定, 越南撤退 不免 (73.8.24 中共 10全大會)</p>	<p>反對는 「해계 모니」的 目的 을 追求하고 있는 毛澤東主 義者들의 策動 을 어렵게 하 기 때문임. (73.9.11 「프라우다」)</p>
5. 亞洲反帝 共同戰線	○ 美帝를 反對 하는 鬪爭을 벌리기 위해서는	<p><對北韓></p> <p>○ 反帝革命鬪爭 支持</p>	○ 소聯은 平和 와 社會主義 現實의 決定的인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國際的 反帝, 反美 共同戰線을 強化해야 함.</p> <p>○ 反帝 反美 共同戰線을 이룩하고 反美 鬪爭을 廣範히 展開하기 위해서는 一致한 步調로서 美帝國主義에 打擊을 주고 反擊을 加해야 함.</p> <p>(73.9.9 北韓 創建 25 周年 金一報告)</p>	<p>○ 鬪鬪的 親善團 結 強調</p> <p>(73.9.9 北韓 創建 25 周年 毛澤東 祝電)</p> <p>※ 73.10.2 교관화 第 28 次 U N 總會 基調演說에서 北韓代辦演說</p> <p><對印支></p> <p>○ 全力을 다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越南人民의 正義의 事業 支持 (73.4.1 人民日報 社說)</p>	<p>鬪爭에 百萬의 援助와 支持를 주는 것을 自己의 國際的 義務로 認定</p> <p>(73.7.10 「브레즈네프」)</p> <p>○ 現時点에서 社會主義國家들 間의 團結과 協調의 全面的 鞏固化, 社會主義世界와 民族解放力 量들 間의 同盟 強化가 特히</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 越南人民의 正義의 鬪爭이 最後의 勝利를 達成할 때까지 堅決히 支持 (73.9.2 人民日報 社說)</p> <p>※ 73.10.12 中共·「크메르」의 UN議席을 「시아누크」政權과 代替시키기 위해 庄力作用 <特異動向></p> <p>1) 73.8.31 人民日報, 金日成 祝電 大書特筆</p> <p>○ 毛主席 再選 祝賀</p> <p>○ 10全大會路線에 따라 偉大한 成果達成을 祝願</p> <p>2) 73.9.17 「풍미두」 偉大統領</p>	<p>重要な 意味가 있음. (73.7.18 소·越盟 共同聲明)</p> <p>○ 革命은 輸出되 지 않으나 反革命의 輸出과 人民들의 內政에 對한 帝國主義 干涉에 反對하여 언제나 堅決히 싸우고 있음. (73.7.10 「브레즈네프」)</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蘇 聯
		<p>○ 中共, 美軍의 韓國駐屯 不反對</p> <p>○ 中共은 金日成式 統一方案 不願 (韓半島 現狀打破 招來 할 統一方案)</p> <p>3) 73.9.29 「시하누크」· 「크메르」反政府 「게릴라」들이 中共과 越盟으로 부터 援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p> <p>4) 73.10.1 中共 3大機關紙 共同社說</p> <p>○ 亞洲反帝 共同戰線에 關係 言及回避</p> <p>※ 精神的 連帶性 強調로 轉換</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5) 75.4.26 金日成 訪中共同 聲明 ○ 双方은 反帝 共同鬭爭에서 근거 團結하여 鬭爭할 것임.	
6. 民族解放 鬭爭支援	○ 中共이 自由와 解放을 위한 모 든 被壓迫 人民 들과 被壓迫 民 族들의 鬭爭을 支持하고 있는 것은 싸우는 革 命的 人民들을 繼續 積極 支持 聲援하려는 確固한 決意表示 임.(72.3.4 勞動 新聞) ○ 北韓은 모든나 라 人民들의 革 命鬭爭을 支持 聲援하는 것을 自己의 高상한	○ 中小國家는 統 一戰線 形成코 美·소를 孤立시 켜야 함. (72.1.1 人民日 報 元旦社說) ○ 世界 모든人民 은 革命, 自由, 獨立을 追求하고 있으며, 中共은 各國人民의 解放 鬭爭을 支持 (72.2.8 美·中 共 共同聲明) ○ 現 國際情勢는 各國人民에게 有 利, 帝國主義, 現 代修正主義, 各國	○ 世界에 造成 된 새로운 影 響關係, 社會主義 主義國家들의 政 治, 經濟, 軍事 威力의 強化, 民 族解放運動의 勞動 및 共產 主義運動 昂揚 이 平和와 社 會的 進歩偉業 과 今後 地位 에 現實的 性 格을 決定할 것임. (73.7. 18 소聯·越盟 共同聲明) ○ 「베트남」에서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國際主義的 義務로 여기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고 있음. (73.9.9北韓創建記念宴會에서의 金日成演說)</p> <p><中東戰에 對한 反應></p> <p>○ 美帝의 사측하 「이스라엘」侵略軍이 6日 UAR 「시리아」에 同時攻擊 開始 (73.10.7中放)</p> <p>○ 北韓은 美帝와 「이스라엘」侵略者들을 反對하여 싸우는 埃及과 「시리아」에</p>	<p>反動派에 不利 (73.8.24中共黨 10全大會 政治報告)</p> <p>○ 現今 世界의 主要傾向은 革命임. (73.10.2 교관화)</p> <p>○ 印支人民들의 勝利는 世界 전반적 情勢發展에 큰 影響을 주게 될것임. (75.4.26 金日成 中共訪問 共同聲明)</p> <p>○ 中共政府와 人民은 「이스라엘」의 罪行에 憤慨하며 이를 糾彈</p> <p>○ 反「이스라엘」戰爭鬭爭期間에 中共은 언제나 당신들의 便에 서있음. (73.10.8 회봉비 外交部長)</p>	<p>의 勝利는 소 聯 및 다른社會主義 大家庭國家들이 各方面에 걸친 強力한 援助의 結果임. (73.8.15 「브레즈네프」)</p> <p>○ 埃及의 平和가 危脅받을 境遇 兩國間 友好條約 (71.5)을 發効시킬 것임. (73.10.7 「포 드고르니」)</p> <p>※ 73.10.9 「브레즈네프」·「브 메디안」 「알제 리아」大統領에</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軍事的 援助를 包含한 物心兩面의 援助」를 줄 데 對한 決定 採擇 (73.10.18 강희원)</p> <p>○ 北韓은 「아 람」人民의 便에 서서 온갖 形態의 支援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確認함. (73.10.18 金日成)</p> <p>※ 北韓操縱士 53名이 73.10.10 現在 埃及 基地에 駐屯 (駐 埃及 美外交官 3等書記官「토크 톤」)</p>	<p>○ 美·소가 中東 事態의 責任을 「아람」人民에게 轉嫁 (73.10.15 人民日報)</p> <p>※ 周恩來, 北京駐 在 埃及·「시리 아」大使와 會談 코 「아람」의 對「이」鬭爭 支 持 表明</p> <p>○ 「아람」人民의 正義의 鬭爭에 確固한 支持를 表明함. (75.4. 26 金日成 中共 訪問 共同聲明)</p>	<p>埃及·「시리아」 支援呼訴 「멧세 지」 發送</p>
7. 國際情勢	○ 오늘 全般的 國際情勢는 우리 人民의 革命鬭爭과	○ 現 國際情勢는 帝國主義와 現代 修正主義에 不利	○ 國際緊張緩和는 紛爭解決 手段으 로 戰爭을 단순히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世界 進步的 人民들의 革命 偉業에 크게 有利하게 發展 하고 있음.</p> <p>○ 美帝를 우두 머리로 하는 帝國主義者들의 侵略과 戰爭政 策은 全面的으 로 破産되어 가고 있음. (73.9.9金一 報告)</p> <p><歐洲安保></p> <p>○ 北韓은 歐羅 巴의 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歐羅巴 社會主 義 나라들을 비롯하여 이地 域 人民들이 기울이고 있는 努力에 全的인 支持 表함. (73.9.9金一 報告)</p>	<p>(73.8.24 10全大會)</p> <p>○ 世界的 緊張緩 和를 美·소兩國 이 破壞 (73.10.2駐UN 中共代表 교관화)</p> <p>○ 現 國際情勢가 革命的 人民에게 는 더욱 有利하 게, 帝國主義와 신구植民主義에게 는 不利하게 發 展(75.4.26 金日成 中共訪問 共同聲明)</p> <p><歐洲安保></p> <p>○ 「西歐의 緊張 緩和는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고 소聯의 全歐 安保 提議를 警 告(73.8.21 周恩來)</p> <p>○ 美·소 兩國은 다른 國家들을 代弁하려 하고 있으나, 항상 歐洲國家들의</p>	<p>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國家間에 完全 平等과 互惠의 基礎위에서 協 調를 發展시키는 것을 前提로 함. (73.9.24 「브레즈네프」)</p> <p>○ 5大強國(美· 英·仏·소·中 共)은 自律的 으로 國防費를 10%씩 減縮, 이를 저개발국 開發基金으로 轉用할 것을 提議함. ※ 73.9.25 「그로미코」 UN總會 演說</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分割을 企圖하고 있음. (73.5.18 周恩來 AFP 記者會見) <核禁問題> ○ 美·소 核實 驗 制限協定 締結後 10年間 소聯은 100余 次 核實驗 實施 (73.8.5 人民日報) ○ 소聯은 말로만 核禁追求, 實際는 核軍備 強化 (73.8.23 人民日報) ○ 中南美地域 非核地帶 設置 支持 (73.8.21 中共政府 發表	<核禁問題> ○ 核武器 使用 禁止를 包含한 世界軍縮會議를 위한 實際的 準備 必要함. (73.9.25 「그로미코」 UN總會)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8. 各國對內 政治와 關 聯論調	<p>○ 社會主義 나 라들과 共産党 들은 內政干涉 및 同志的 協 調의 原則에 忠實해야 함。 (72.12 「소 비엘」 創建 50 周年 祝용건)</p>	<p>○ 소聯은 말로 만 社會主義이 고 實際는 帝 國主義임。 (73.10.2 駐 UN 中共代表 교관화)</p>	<p>○ 소聯사람들은 나라의 民族的 統一을 위한 條件을 保障하 려는 朝鮮勞動 黨과 政府와 全体 朝鮮人民 의 常時的 努 力에 깊은 共 感을 가지고 대하고 있음。 (73.9.9 「모스크」 放送)</p> <p>○ 中共10全大 會의 文件들은 毛沢東主義者들 의 反人民的이 며 反社會主義 的인 性格을 다시한번 確證 하고 있음。 (73.9.4 「이 스베차」 紙)</p>
9. 南北對話	<p>○ 南朝鮮人民들 의 壓力과 世</p>	<p>○ 71.4.12 北 韓 平和統一</p>	<p>○ 南北赤十字會 談은 韓半島</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界人民들의 強力한 輿論때문에 南北高位級 秘密會議 提議 (72.9.5 金日成 每日「다카하시 다케히고」對談)</p> <p>○ 南北韓으로 흔어진 家族·親戚들을 찾는 데서 풀어야 할 先決問題는 이것을 充分히 保障할 수 있는 「自由로운 環境과 條件」을 마련하는 것임 (73.3.24 金泰禧 赤十字 5次會談)</p> <p>○ 南北사이에 現軍事的 對峙</p>	<p>8個項 支持 (72.2.28 美·中共 共同聲明)</p> <p>○ 7.4 共同聲明은 平和的 自主統一을 위한 良好한 시작。 이는 北韓 自主平和統一路線의 勝利 (73.7.8 人民日報)</p> <p>이</p> <p>○ 南北韓 外勢 排除條件下 自</p>	<p>情勢緩和에 큰 意義를 갖고 있음。</p> <p>○ 重要한 것은 南北의 廣範한 階層이 北韓의 「이 니시아티브」를 認定하고 있다는 点임。 (72.9.22 「프라우다」)</p> <p>○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間에 對話의 길이 열린 것을 歡迎 (73.10.日·소 共同聲明)</p> <p>○ 소聯은 南北 間의 軍事的</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상태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그만두고 兵力과 軍備를 縮少해야하며, 海外로부터의 戰爭武器를 들여오지 않을 것은 勿論 모든 外國 軍隊를 撤去시켜야 함.</p> <p>(73.3.15 調節委 第2次會議)</p> <p>○ 南朝鮮의 李厚洛을 비롯한 中央情報部 장관들을 더는 南北對話에 參加시킬 수 없다는 것을 內外에 嚴厲히</p>	<p>主, 平和統一 南北對話 支持 (72.10.3 駐 UN 中共代表團 長 교관화)</p> <p>○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對話 促求 (北韓 創建 25 周年 毛沢東祝電)</p> <p>○ 李厚洛 情報部長은 調節委에 繼續 앉아 있을 資格이 없으니 南北調節委는 應당 全民族의 意思를 反映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當局者들뿐 아니라 各 政 党 · 社 會 團體, 各界各層</p>	<p>對決을 終息시키며, 나라의 統一을 위한 條件을 保障하려는 朝鮮의 「상시적 努力에 깊은 共感表示」 (73.9.9. 「브레즈네프」 金日成에 祝電)</p> <p>○ 韓半島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롭고 建設的인 움직임을 첫째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信義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임. (73.9.25 「그로미코」)</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闡明함。 (73.8.28 金英柱聲明)</p>	<p>人民의 代表가 參加해야 함 (73.9.6 北京放送)</p>	<p>○ 金英柱의 聲明은 韓半島의 民族的 統一을 回復하는 方途에 關한 會談에서 南韓政權이 取하고 있는 妨害的 立場을 正當하게 批判하고 있음 (73.9.8 모放)</p>
<p>10. 6.23 宣言과 UN 同時加入</p>	<p>○ 6.23 5大綱領 發表 ① 南北軍事對峙 解消 ② 多方面 合作 交流實現 ③ 大民族會議 召集 ④ 單一國號에</p>	<p>○ 金日成의 「6.23 重要談話」는 韓半島 緊張緩和의 基礎임。 ○ 5個項의 新統一方案 積極支持 (73.6.24 周恩來)</p>	<p>○ 金日成의 提案 (5大綱領) 은 韓半島와 極東에서 緊張狀態를 緩和하며, 平和的,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의 統一을 위한 또</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依한 聯邦制 實施</p> <p>㉔ 單一國號로 UN 加入</p> <p>○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은 「2個의 朝鮮」의 永久分裂을 公認받자는 것으로 이는 南北共同聲明을 짓밟고 對話를 破綻으로 이끄는 破壞行爲임. (73.9.26 北韓의 對UN 備忘錄)</p>	<p>○ 南韓當局은 國家의 平和的 統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2個의 韓國」을 劃策함으로써 韓國分裂 永久化 企圖 (73.7.11 이선님)</p> <p>○ 南北韓의 UN 同時加入提案은 明白히 韓國의 分斷을 合法化 하고 永續化 하려는 企圖임. (73.10.2 駐 UN 中共代表 교관화)</p> <p>○ 美帝가 朝鮮의 分裂事態를 固定化하고 永久化하기 위하여 「2個 韓國政策」을 實</p>	<p>하나의 重要한 發言 (73.6.26 「코쉬긴」·권희경 面談時 發言)</p> <p>○ 北韓의 重要한 발기로 하여 韓半島에서 새로운 肯定的인 기후가 造成되었음. (73.8.15 「브레즈네프」)</p> <p>○ 朝鮮半島에서 一定한 肯定的인 變遷이 일어나고 있는 現條件 밑에서 朝鮮의 平和的인 民主主義的</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施하고 있으며, 이를 糾彈함. (75.4.26 金日成 中共訪 問時 共同聲明)	統一을 가로막 는 새로운 인 위적 障害가 添加되는 것을 許容해서는 안 됨. (73.10. 19 「모스크」 放送解說)
11. 駐韓美 軍問題	○ 美軍撤收가 平和會談의 前 提條件이 아님. (72.4 金日成 日本 3社) ○ 美國의 對中· 소 接近으로 駐韓美軍 名分 喪失 (72.5 金日成 NYT) ○ 美軍撤收條件 으로 各各 10 萬兵力 減縮 (72.5 金日成 W.P) ○ 韓國이 願하 면 南北間 統	○ 中共은 弱小 國에 對한 外 勢의 侵略, 干 涉, 支配, 顛覆 을 反對하며, 外軍撤收 主張 (72.2.28 美·中共 共同 聲明) ○ 美軍撤收, 「언 커크」解体 主 張 (北韓創建 25 周年 毛沢東 祝電) ○ 「언커크」: UNC 는 北韓에	○ 中共은 帝國 主義的 反動勢 力과 野合, 東 南亞 美軍駐屯 에 同意하고 있음. (73.8. 26 「프라우다」) ○ 外軍이 南朝 鮮을 占領하고 있는 條件밑에 서는 南朝鮮住 民들의 貧窮과 欠乏을 더 深 化시키는 結果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一問題 合意到 達時까지 美軍 駐屯은 무방하 나 UN 旗 使 用은 排除해야 함。(72.6 金日成 「카나 다 토론토스타」 紙)</p> <p>○ 南朝鮮駐屯 美軍에게 UN軍 의 모자를 벗 기고 그들을 撤去시키기 위 한 措置를 取 해야 함。(73.9.9 金日成報告)</p> <p>○ UN 은 第 28 次 總會에서 美國軍隊에서</p>	<p>對한 危脅的 存在이며, 韓半 島 緊張造成의 根源임。(73. 10.3 UN 駐在 中共代表 교관 화)</p> <p>○ 韓國의 獨自 的이고 平和的 인 統一을 促 進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하 기 위해 駐韓 UN 軍司 解体 에 同意해야 하며, 駐韓 全 外國軍 撤收에 同意해야 함。(73.10.2 駐UN 中共代表 교관 화)</p> <p>○ 中共은 UNC 는 반드시 解 體되어야 하며,</p>	<p>를 가져올 것 임。(73.9.9 「모스크」放送)</p> <p>○ 朝鮮人民의 內政을 外部로 부터 干涉한다 는 것은 朝鮮 의 平和와 民 主的 統一에 새로운 障礙로 서 許容될 수 없는 것임。(73.9.25 「그로미코」)</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UN軍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撤去시켜야 함。(73.9.26 北韓의 對UN 備忘錄)	美國軍隊는 南朝鮮에서 完全 撤收해야 함。(75.4.26 金日成 訪中 共同聲明)	
12. 經濟協力問題	※ 中·소의 對北 經濟協力에 公式論評 回避	○ 소聯의 社會主義 集團間 相互 經濟援助 政策은 名目上의 經濟協力일 뿐이며, 實質的으로는 經濟的 支配임。 (73.4.4 新華社) ○ 中共의 對北 韓 援助 ① 1953 - 1971 3億 3千萬弗 ② 6個年計劃 遂行을 위한 援助 1970年	○ 朝鮮勤勞者들의 成果는 社會主義的 國際主義 現實의 生動하는 模範이며, 이는 兄弟的 社會主義 나라들의 效果的 協調와 互相援助의 結果임。(73.9.9 「모스크」放送) ○ 지금 소聯은 朝鮮의 近30 個의 重要한 人民經濟建設을 도와주고 있으며, 소聯技術者 數百名이 일하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2 億弗借款 (無利子) ③ 72年貿易 額：1 億 5 千 萬弗 ④ 中共의 對 北韓 軍事援 助 66-70=1 1,500 萬弗 71=500 萬弗 72 = 8,500 萬弗 ⑤ 74 年度 北傀 년원유대 량 57%인 85 萬t 支援	일하고 있음。 (73.9.18 「모스크」放 送)
	○ 北韓中放 73.10.3 字 雄 基精油工場 第1 段階工事 다그 치자 強調		○ 雄基精油工場 은 73.9.9 北韓創建 25 周年 前夜에 操業着手 (73.9.18 「모스크」放 送)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 現在 北倉火力發電所 出力 80 萬kw (73.10 現在)</p>		<p>○ 北倉火力發電所 第8号機가 建設되었으며, 出力은 100萬kw에 達함. (73.9.18 「모스크」放送)</p> <p>※ 소聯의 對北韓 軍事援助 66-70=2億千 萬弗 71=1億5千萬弗 72=5千萬弗</p>
13. 對韓國 態 度	<p>○ 南朝鮮當局은 「U」大會 契機로 北韓과 社會主義나라들 사이에 쇄기를 박으며, 社會主義國家間的 團結瓦解에 利用 하려하고 있음 (73.8.14 北韓大學體育協會聲明)</p>	<p>○ 72.10.17 戒嚴宣布는 韓半島의 平和的 再統一念願을 꺾고 人民彈壓 強化를 위한 計劃된 行爲 (72.10.19 新華社)</p> <p>○ 朴徒黨은 似而非憲法을 強要함으로써 獨</p>	<p>○ 모든 「아시아」國家들이 例外없이 平等善隣, 協力關係를 樹立하기를 希望(73.7.10 「브레즈네프」)</p> <p>○ 韓半島 情勢를 繼續 緩和하며, 南北韓의 平和統一을 自身の 힘으로</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2億弗借款 (無利子) ③ 72年貿易 額: 1億5千 萬弗 ④ 中共의 對 北韓 軍事援 助 66-70=1 1,500萬弗 71=500萬弗 72=8,500 萬弗 ⑤ 74年度 北傀 년원유대 량 57%인 85萬t 支援	일하고 있음。 (73.9.18 「모스크」放 送)
	○ 北韓中放 73.10.3 字 雄 基精油工場 第1 段階工事 다그 치자 強調		○ 雄基精油工場 은 73.9.9 北韓創建 25 周年 前夜에 操業着手 (73.9.18 「모스크」放 送)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 現在 北倉火力發電所 出力 80 萬kw (73.10 現在)</p>		<p>○ 北倉火力發電所 第8号機가 建設되었으며, 出力은 100萬kw에 達함. (73.9.18 「모스크」放送)</p> <p>※ 소聯의 對北韓 軍事援助 66-70=2億千 萬弗 71=1億5千萬弗 72=5千萬弗</p>
13. 對韓國 態 度	<p>○ 南朝鮮當局은 「U」大會 契機로 北韓과 社會主義나라들 사이에 쇄기를 박으며, 社會主義國家間의 團結瓦解에 利用 하려하고 있음 (73.8.14 北韓大學體育協會聲明)</p>	<p>○ 72.10.17 戒嚴宣布는 韓半島의 平和的 再統一念願을 꺾고 人民彈壓 強化를 위한 計劃된 行爲 (72.10.19 新華社)</p> <p>○ 朴徒黨은 似而非憲法을 強要함으로써 獨</p>	<p>○ 모든 「아시아」國家들이 例外없이 平等 善隣, 協力關係를 樹立하기를 希望(73.7.10 「브레즈네프」)</p> <p>○ 韓半島 情勢를 繼續 緩和하며, 南北韓의 平和統一을 自身의 힘으로</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p>裁体制을 構築, 이는 南北會談에 支障 招來 (72.12.1 新華社)</p> <p>○ 朴集團은 「팻쇼」統治를 強化하고 戰爭準備에 拍車を 加하고 있음. (73.7.11 人民日報社說)</p> <p>※</p> <p>(1) 73.8.14 東支那海上에서 「大昌」号 遭難, 船員 9.26 歸還措處 (船員 8 名)</p> <p>○ 朝鮮民族의 唯一한 合法的</p>	<p>早速히 達成할 追加的 前提條件이 지금 지어지고 있음. (73.9.13 UN 總會와 關聯 「모스크」放送)</p> <p>○ 소聯은 소聯의 對「아시아」外交政策을 支持하는 「아시아」 어느 國家와도 提携할 用意가 있음. (73.9.25 「그로미코」)</p> <p>※</p> <p>(1) 韓國人 유덕형 소聯入國 許容 (73.5.27)</p> <p>(2) 소聯船舶의 濟州道海峽 通過 (73.5.31 소聯商船 「베레코프」号)</p>

項 目	國 家		
	北 韓	中 共	소 聯
		主權國家로서 北傀의 國際的 地位는 날로 높아가고 있음 (74.4.26 金日成 訪中 共同声明)	(3) 「유니버시아 드」大會 韓國 選手團 參加 (73.8.15 「모스크」大會) (4) 韓國經濟人 소聯入國 (73.6.15 전택보, 김용완) (5) 「사할린」僑 胞 送還用意 表明 (73.6. 15 日赤)